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미 숙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안익태의 지적능력 계발과정에 관한 연구

2010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정 은 진

안익태의 지적능력 계발과정에 관한 연구

김 미 숙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정 은 진

인 준 서

정은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이 연구에서는 지휘자 겸 작곡가 안익태를 대상으로 그의 독특한 지적 능력이 전 생애에 걸쳐 어떻게 형성되고 계발되었는지 분석하여 인간의 지적 능력을 계발하는 교육적 원리를 찾고, 교육 현장에 생생한 사례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 절차는 안익태의 다중지능 특성이 생애에 걸쳐 어떻게 발달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그의 지적 강점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 주요 사건을 추출하여 생애사를 재구성 하였다. 그리고 Gardner의 체계적 접근을 적용하여 능력의 계발 과정 안에 발견되는 3가지 요소인 개인, 영역, 분야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안익태는 다중지능 이론 중 음악·자기성찰·인간친화지능이 전 생애에 걸쳐 발달 하였다. 그 발달 과정을 특징에 따라 '음악·자기성찰지능 발현기', '음악지능 제한적 발달기 및 자기성찰·인간친화 지능 발달기', '음악·자기성찰 지능 발달기 및 인간친화지능 제한적 발달기', '음악·자기성찰·인간친화지능 통합 발현기'로 구분하였다. 이 과정은 개인·영역·분야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하거나 제한되는 과정을 거쳤다.

그는 이러한 지적 능력 계발 과정을 통하여 한국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했고 그 시대에 한국을 잘 알지 못했던 외국에서도 조국을 알리기에 노력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음악 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비범한 음악적 성취는 다양한 공부와 경험, 집념, 사회·문화적 환경, 영향력 있는 인물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특정 개인에 관한 연구로서 일반화된 법칙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유사한 연구들과 관련성을 검토하거나 위대한 음악가에 대한 전기적 인물연구가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공통된 결과에 대한 통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위대한 음악가의 능력 계발 과정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지속된다면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하려는 음악 교육 현장에 훌륭한 예제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내 인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한국의 교육 현장에서 좀 더 설득력 있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학교 교육과 사회 문화적 환경의 특성이 지적 능력 형성과 계발을 자극하는 방향에 대한 탐색이 가능할 것이다.

목 차

논 문 개 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3. 연구의 제한점	3
II. 이론적 배경	5
1. 다중지능이론	5
2. Gardner의 전기적 인물 연구	5
III. 안익태의 주요 생애 사건	16
1. 섬세한 성격의 음악 신동	16
2. 세계 속의 한국인	18
3. 남다른 한국사랑	25
IV. 안익태의 지적 능력 개발 과정	31
1. 안익태의 지적 능력	31
2. 지적 능력 계발 과정	34
V. 결론	57

참고문헌

ABSTRACT

그림 목 차

<그림 1> Gardner의 전기적 인물 연구에 적용된 체계적 접근모형	14
<그림 2> 안익태의 지적 능력 계발 과정	35
<그림 3> 음악·자기성찰지능 발현기	38
<그림 4> 첼로를 배운 안익태	39
<그림 5> 음악지능 제한적발달기 및 자기성찰·인간친화지능발달기	43
<그림 6> 첼로 독주회 후 지인들과 함께	44
<그림 7> 음악지능·자기성찰발달기 및 인간친화지능 제한적발달기	48
<그림 8> 펠릭스 바인가르트너 사사와 함께	49
<그림 9>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사사와 함께	49
<그림 10> 멕시코 Guanahato 시립심포니 연주	49
<그림 11> 음악지능·자기성찰·인간친화지능 통합 발휘기	54
<그림 12> 제3회 국제음악제 팜플렛 표지	55
<그림 13> 제1회 국제음악제 개막식 <코리아 판타지> 연주	55

악 보 목 차

<악보 1> <코리아 판타지> 친필 악보의 일부분	50
<악보 2> 임시정부에서 출판한 안익태 작곡 <애국가> 악보	51
<악보 3> <논개>의 친필 악보	55

표 목 차

<표 1> 다중지능의 선별 준거	7
-------------------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누구나 타고난 지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 어떤 사람은 그 능력을 발견하고 계발하여 뛰어난 업적과 성취를 이룬다. 그러나 대부분은 자신만의 지적 능력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가며, 그것을 발견하더라도 적절하게 계발하지 못한다.

이와 관련해 현대의 교육은 인간의 개성을 존중하여 다양성을 길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인간이 소유한 다양한 지적 능력을 발견하고 그 독특한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교육은 자신의 지적 능력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는 문제의 해결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실제로 많은 교육 심리학자는 인간이 갖춘 능력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가꾸어 실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여 왔다.

최근에는 이러한 지적 능력의 형성과 발달에 대한 궁금증을 해당 분야 위인들의 일생을 통해 알아보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비범한 성취를 이룬 위인들의 삶을 분석하여 그들의 타고난 지적 능력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능력이 발달하게 된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의 지적 능력을 계발하는 교육적 원리를 찾고, 개인의 다양한 능력을 발견·계발하고자 하는 교육 현장에 생생한 사례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Howard Gardner¹⁾는 비범하고자 한 사람들이 비범한 모델을 관찰하게 된다면 그들의 비범성은 발현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하였다.²⁾ 따라서 이러한 연구

1) Howard Gardner(1943~) : 미국 하버드 대학교 교육대학원과 홉스대학교 인지교육학과 교수로 지능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 '다중지능이론(Multiple Intelligence Theory)'을 제시하여 지능 연구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2) Howard Gardner, 「비범성의 발견」, 문용린 역, 서울 : 해냄출판사, 1999, p.220

의 대상이 되는 위인은 일종의 역할 모델이 되어 교육 현장의 학생에게 지적 능력을 계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는 교육·사회·문화적 환경이 한 개인의 지적 능력에 작용하는 영향을 밝혀 우리의 교육 현실과 사회·문화적 환경을 반성적으로 되돌아 볼 기회가 된다.

이처럼 개인의 능력 계발 사례를 분석하여 교육적 논의를 일구어내는 연구는 그 가치와 필요성이 인정된다. 특히 국내 인물을 선정하고 그 지적 능력 계발 과정을 분석하는 것은 현 한국의 교육 현장에 있는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에게 좀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음악 교육의 현장에도 비범한 음악적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 비범한 음악적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언제나 높은 기준에 주목해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조금씩 발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그들에게 음악 분야의 위인은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다. 위인을 본받는 노력이 그들을 항상 세계적 음악가로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위대한 음악가의 지적 능력 계발 과정에 주목함으로써 더 나은 실천과 성취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한국 태생의 여러 위대한 인물 중 지휘자겸 작곡가 안익태는 음악가를 경시하는 사회적 통념과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지적 능력을 발견하여 일찌감치 꿈을 정하고, 초지일관의 노력으로 여러 고난을 극복하고 남다른 음악적 성취를 이룬 비범한 인물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지휘자겸 작곡가 안익태를 대상으로 그에게 나타나는 독특한 지적 능력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고, 그 능력이 전 생애에 걸쳐 어떻게 형성되고 계발되었는지 분석하여 교육적인 시사점을 찾고, 음악 교육 현장에 역할 모델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이 연구는 지휘자겸 작곡가 안익태의 생애를 통하여 그의 지적 능력이 무엇인지 찾고, 그 능력이 계발·발휘된 과정을 분석한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익태와 관련된 문헌 자료를 수집하여 그의 생애 전반에 걸쳐 지적 행보에 커다란 영향이나 변화를 가져왔던 주요 생애 사건을 찾아낸다.

둘째, 안익태의 주요 생애 사건에 나타나는 그의 지적 능력을 Gardner의 다중지능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평가한다.

셋째, 안익태의 주요 생애 사건에 Gardner의 체계적 접근 모형을 적용하여 지적 능력의 계발 과정을 분석한다.

넷째,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교육적인 시사점을 찾는다.

3.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는 그 수행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이 연구는 인간의 지적 능력 발달 측면에서 안익태가 위대한 음악가로 성장하기까지의 과정 그 자체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의 음악 세계에 주목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생애사에 집중하였다. 따라서 안익태의 작품을 분석하거나 작곡 기법을 연구하는 등의 음악 이론적인 논의를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다.

둘째, 이 연구는 안익태라는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개인마다 지적 능력과 처해있는 사회·문화적 환경은 다르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론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셋째, 이 연구는 안익태라는 한 개인의 복잡다단한 삶을 문헌 자료에만 의존

하여 이해하였고, 특정 이론의 틀을 적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그의 삶과 음악 세계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다중지능이론

전통적 관점에서 지능은 주로 IQ(Intelligence Quotient)를 의미한다. 심리 측정가들은 인간의 지능 또는 지적 능력을 IQ와 동일시한다. 또한 지능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일반적인 능력으로 평가 되어 학교에서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개념의 내면에는 지능이 하나의 단일한 개념이라는 신념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IQ와 동일시되는 전통적인 개념의 지능은 단지 논리·수학이라는 특정 부분의 능력만을 제한하여 반영하므로 인간의 다양한 능력을 측정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이와 같이 인간의 지능은 몇 가지 제한된 능력들로 협소하게 측정되어 이해되어 왔다.

1980년 교육·심리학자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여 지능을 인간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표출되는 다양한 능력에 맞추어 측정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 중 대표적인 학자 Gardner는 다중지능이론을 제시 하여 학습자의 사고력과 창의성을 최대한 신장시키면서 인간이 가진 다양한 능력을 발굴하고 계발 하는 것을 강조한다.

가드너는 기존의 지능에 대한 개념을 넘어서서 지능은 사회 속에 직면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지적능력으로 보았고, 환경과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그 문화권에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산물을 창조하는 능력으로 정의 한다. 이렇듯 그는 지능을 단일한 척도로 보는 IQ검사에 동의하지 않았다. 인간은 개인마다 발달 양상도 다르고 지능 프로파일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 능력을 조화시켜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문화에 맞게 적용하고 조절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일을 수행한다.³⁾

3) 이경언, 「초등학교 음악과 교수·학습 방법 연구」, 서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2, p.121

가드너는 이런 신념 아래, 인간에 관한 여러 연구를 바탕으로 생물학적 기원을 가진 수백 가지의 후보 지능 중에서 <표 1>과 같은 선별 준거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중지능에 포함하였다.

<표1> 다중지능의 선별 준거

다중지능의 선별준거
1. 그 지능에만 작용하는 특정 두뇌 영역이 있어 그 부위에 뇌 손상을 입으면 상실되는 능력이어야 할 것.
2. 사람마다 최종 발달의 수준이 다르고, 최저부터 최상까지 능력 수준의 차이가 있을 것.
3. 여러 가지의 감각 능력과 단순한 능력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능력일 것.
4.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는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고, 보편적으로 겪는 발달의 과정이 있을 것.
5. 동물 진화의 역사 속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을 것.
6. 독립적인 하나의 지능으로서 다른 지능과 구별될 수 있을 것.
7. 그 지능의 존재를 확신할 수 있는 핵심적인 상징체계가 존재하고, 그것을 부호화할 수 있는 능력일 것.
8. 그 지능을 가진 사람에게 예민한 특정 자극이 있을 것. 즉, 특정 영역의 천재나 비범한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감각 자극이 있을 것.

그는 이러한 심리·생물·문화인류학적 선별 준거에 합당한 인간의 지적 능력을 찾아내어 개념화 하였다. 그 지능 개념은 8가지로 전통적인 지능 개념에서 중시되는 논리 수학·언어 능력을 포함하여 공간·신체운동·음악·인간 진화·자기성찰·자연친화지능 등의 지적 능력을 포함하여 제시하였다.

모든 사람들은 이 8가지 지적 능력을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으며 유전·환경

의 영향을 받아 특정 지능이 발달하고 더 드러나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각 지능은 일반적인 능력부터 고도의 능력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나는데 일반적인 능력은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고 고도의 능력은 그 분야의 비범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능력이다. 각 지능은 독립적인 능력으로 독립적으로 발달하고 나타날 수도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통합적으로 발달하고 각 지능이 다른 지능의 발달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가드너가 심리·생물·문화인류학적 선별 준거에 따라 채택한 8가지 지능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1) 논리수학지능

논리수학지능(Logical-Mathematical Intelligence)은 숫자, 규칙, 명제 등의 상징체계를 잘 익히고 창조하며, 그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수학이나 어떠한 현상 등을 논리적으로 추론하여 규칙이나 법칙을 발견하거나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이 이에 해당한다. 이 지능이 잘 발현된 사람은 수학자, 회계사, 통계학자, 과학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이 될 소질이 있다. 대표적 인물로는 Albert Einstein(1879~1955), 우장춘 등을 들 수 있다.

2) 언어지능

언어지능(Linguistic Intelligence)은 음운, 어문, 의미 등의 언어적 상징체계를 빨리 배우고 그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다. 언어 지능이 높은 사람은 글이나 말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잘 표현하고 언어를 기능적으로 구사하며, 탁월한 언어적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 인물로는 Thomas Stearns(1888~1965), John Keats(1795~1821), 김소월, 한용운 등이 있다.

3) 공간지능

공간지능(Spatial Intelligence)은 시각적·공간적 세계를 정확하게 지각하는

능력과 그런 지각을 통하여 형태를 바꾸는 능력을 말한다. 이 지능에는 색, 선, 모양, 형태, 공간 등의 요소 간에 존재하는 관계에 대한 감수성이 포함된다.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하는 시각화 능력, 시각적·공간적 아이디어를 기하학적으로 표현하는 능력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지능이 높은 사람은 건축가, 실내장식가, 조각가 등이 될 수 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Pablo Ruiz Picasso(1881~1973)와 백남준 등을 들 수 있다.

4) 신체운동지능

신체운동지능(Bodily-Kinesthetic Intelligence)은 춤, 운동, 연기 등의 상징체계를 익히고 창조하는 능력으로, 신체의 균형, 손재주, 힘, 유연성, 속도 등과 같은 신체적 능력이 포함된다. 이 지능이 발달한 사람은 신체적 활동에 쉽게 몰입하여 즐길 수 있으며, 무용이나 연극 등에서 신체로 자신의 내면세계를 표현하는 데 뛰어난 재능을 보인다. Martha Graham(1894~1991), 홍신자 같은 무용가나 홍명보 같은 운동선수가 높은 신체운동지능을 가진 사람이다.

5) 음악지능

음악지능(Musical Intelligence)은 가락, 리듬, 소리 등의 상징체계에 민감하고 그러한 상징들을 창조하며, 그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작곡하는 것 등에 음악지능이 필요하다. 이 지능이 뛰어난 사람은 음악가, 음악 비평가 등이 될 소질이 있으며, Wolfgang Amadeus Mozart(1756~1791), Ludwig van Beethoven(1770~1827), 안익태, 윤이상, 정명훈과 같은 사람들이다.

6) 인간친화지능

인간친화지능(Interpersonal Intelligence)은 인간관계적 측면의 능력으로 다

른 사람의 기분이나 동기, 바람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그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다. 유능한 교사, 치료사, 간호사, 비서, 코치, 정치가, 행정가, 판매원, 종교인에게 나타나는 지적 능력을 말한다. 이 지능이 높으면 Mohandas Karamchans Gandhi(1869~1948), Martin Luther King, Jr(1929~1968), 김구 등과 같은 지도자 유형의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다.

7) 자기성찰지능

자기성찰지능(Intrapersonal Intelligence)은 개인의 심리적 측면의 능력으로 자신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지식을 기초로 한다. 이 지능에는 자신의 장·단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 자기 내면의 기분, 의도, 동기, 기질, 욕구 등에 대한 이해 능력뿐만 아니라 자기 통제와 자기 관리 그리고 자존감을 유지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포함된다. 훌륭한 자기성찰지능을 가진 사람은 정확하고 진지한 삶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가 자신의 삶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하도록 한다. 이 지능은 종교인, 예술가, 심리학자들에게서 높게 나타나고 Sigmund Freud(1856~1939), 전해린 등이 이에 속한다.

8) 자연친화지능

자연친화지능(Natural Intelligence)은 자신이 살아가는 환경 혹은 자연 세계에 대하여 관심을 두고, 그 인식과 분류에 탁월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발휘하는 능력을 말한다. 식물학자, 동물학자, 과학자, 조경사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Jean Henri Fabre(1823~1915), 윤무부와 같은 사람이 이 지능 영역에서 뛰어난 사람이다.

2. Gardner의 전기적 인물 연구⁴⁾

교육·심리학자들은 개인의 지적 능력 발달 과정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주로 뛰어난 지적 성취를 이룬 위인들의 삶을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교육·심리학자들이 이러한 사람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특정 분야에서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드러내는 발달 수준을 뛰어넘는 최상수준의 발달사를 포함하기 위해서이다. 즉, 인간의 지적 발달에 대한 연구는 비범한 지적 성취를 이룬 사람을 통하여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가능성까지 예견할 수 있어야 연구의 가치가 극대화된다는 것이다.

지적 영역이나 특별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취를 이룩한 인물에 관한 연구는 Gardner의 전기적 인물 연구에 이르러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 그의 연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Howard Gruber⁵⁾, Dean Kieth Simonton⁶⁾, Mihaly Csikszentmihalyi⁷⁾의 인물 연구를 먼저 살펴본다.

Gruber는 인간의 지적 능력 발달을 설명하고자 생애사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그는 지적으로 비범한 성취를 보였던 예술가, 과학자 등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높은 지적 능력과 창의력이 있는 사람들의 행동 특성과 사고 특성을 규명하려고 노력하였다. 즉, 특정 영역에서 대표되는 비범한 인물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그들의 전형적인 특성을 찾아내려 한 것이다.

그는 비범한 인물의 창의력을 특정 영역의 지식 구조 그리고 개인이 가진 목적과 영향력 있는 경험이 상호작용하면서 발전을 거듭해가는 하나의 체계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를 ‘진화해 가는 체계(evolving system)’라고 정의하였

4) 안태진, 「다중지능 이론의 관점에서 본 전해린의 삶」,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p.25~29 요약

5) Howard Gruber(1922~2005) : 전 캐나다 퀸즈대학교와 미국 콜로라도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인간의 창의성 연구와 관련하여 세계적인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6) Dean Kieth Simonton(1948~) : 미국 데이비드 캘리포니아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주로 천재성, 창의성, 리더십, 재능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다.

7) Mihaly Csikszentmihalyi(1934~) : 전 미국 시카고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이자 현재 미국 클레어몬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교수로 창의성과 행복에 관련한 연구를 하고 있다.

다. Gruber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진화론을 주장한 Charles Robert Darwin(1809~1882)에 관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과학자로서의 Darwin은 특정한 정신세계인 과학 지식 구조에 몰입하여 그 지식 구조를 창조하거나 탐색하는 사고 작용을 즐겼고, 사물이나 문제 현상 등에 대한 정서적인 애착을 느꼈다고 한다.

Gruber는 비범한 성취를 이룩한 인물의 지적 발달을 설명하려면 그 인물이 몰두한 특정 분야의 지식 구조가 어떠한지 주목해야 하고, 발달 과정에서의 정서적 경험 또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개인, 지식의 조직, 정서적 경험 간의 상호작용이 비범한 인물의 삶의 과정 속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Gardner는 Gruber의 심층적인 인물 사례 연구를 관심을 갖고 관찰하였고, 자신의 전기적 인물 연구에 그가 제안한 쟁점들을 더욱 분명히 밝히려고 노력하였다.

Simonton은 비범성의 형성 과정에 일반 법칙이 있는지를 찾고자 하였다. 그는 전기적 방법과 양적 방법을 혼합한 역사 측정적 방법(historimetric method)을 사용하여 비범한 인물들에 대한 자료를 양적으로 분석하고 그들의 발달 과정 속에 공통으로 숨어 있는 정형화된 규칙을 찾아내려 하였다. 예를 들어, 그는 높은 지적 성취를 보이는 인물들은 인생의 어느 시기에 가장 창의적인지, 그들이 관심을 보인 지식의 영역은 그렇지 않은 영역들과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지, 그들의 자아 존중감은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정서적 성향이나 성격은 어떠한지 등의 문제에 대하여 유형화를 시도 하였다. Simonton의 연구는 여러 인물의 사례를 종합하여 지적 능력의 발달 법칙을 발견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그가 가진 문제의식은 Gardner의 전기적 인물 연구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Csikszentmihalyi는 비범한 창조자들의 생애사에서 나타나는 공통적 특징을 분석하고자 체계적 접근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에 의하면 비범한 창조자들의 지적 성취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개인(Individuality; I)·영역(Dom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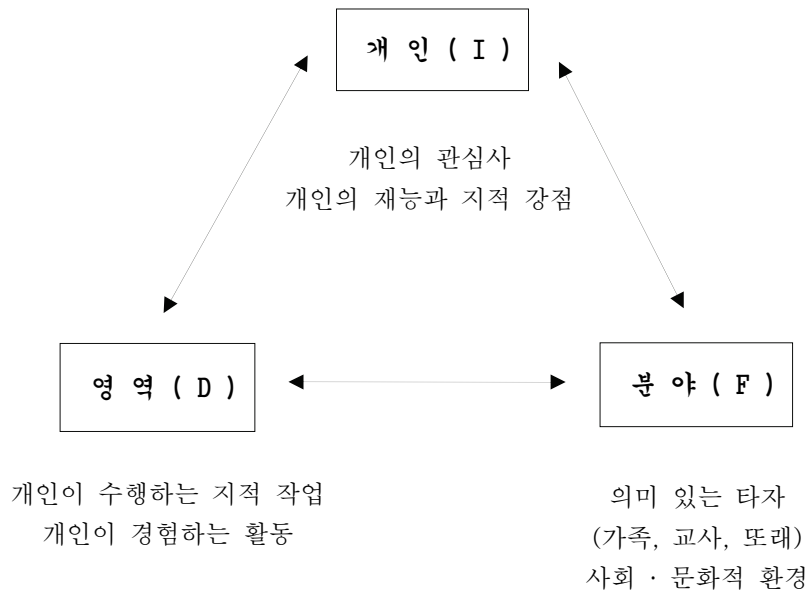
D)·분야(Field; F)로 구성되는 세 가지 요소의 상호작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개인의 지적 능력이 비범한 성취로 발휘되려면 그 능력을 표출할 수 있는 적절한 영역과의 만남이 필수적이고, 개인의 지적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달시키는 동력은 개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위 사람들과 사회·문화적 환경으로 구성되는 분야와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

Gardner는 Gruber와 같이 인물 사례 연구를 면밀히 하되 초점을 개인으로부터 각 분야로 확장하고, 분야 간의 연구 사례를 추가하였다. 그리하여 Simonton이 의도한 규칙 발견에 이를 것을 기대하였다. 즉, 그는 Gruber의 철저한 사례 연구와 Simonton의 법칙 정립적 연구를 연결하는 통합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다양한 지적 능력의 유형화와 지적 발달 과정에서의 법칙 발견이라는 자신만의 전기적 인물 연구를 시도한 것이다. 예를 들어, 그는 창조성의 근원을 탐색하고자 Einstein, Picasso, Graham, Igor Fedorovich Stravinsky(1882~1971) 등의 삶을 분석하였고, 지도력의 근원을 탐색하고자 King, Margaret Mead(1901~1978), Robert Maynard Hutchins(1899~1977), George Catlett Marshall(1880~1959), John Robert Oppenheimer(1904~1967), Margaret Hilda Thatcher(1925~) 등의 삶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는 Mozart, Freud, Gandhi, Adeline Virginia Woolf(1882~1941)의 독특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연구한 바 있다. 그는 영국의 작가인 Woolf의 작품, 일기, 편지 등의 광범위한 자료들을 통하여 그녀의 지적 능력의 형성과 발달 과정을 분석하기도 하였는데, 그녀의 성취는 자기성찰지능과 언어지능의 이상적 결합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혔다.

Gardner는 이러한 인물들의 생애사를 분석하면서 Csikszentmihalyi의 체계적 접근 모형을 적용하였다. 그는 특별한 지적 강점과 성격을 가진 개인, 그 개인이 지적 강점을 발휘하는 특정한 영역, 가족·친구·스승과 같이 큰 영향을 주었던 사람과 사회·문화적 환경으로 이루어진 분야, 이 세 요소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인간의 비범성 발휘 과정을 분석하였다.

Gardner가 전기적 인물 연구에 적용한 체계적 접근 모형을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Gardner의 전기적 인물 연구에 적용된 체계적 접근 모형



Gardner는 <그림 1>과 같은 분석 체계를 개인의 삶에 적용하여 개인 · 영역 · 분야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한 개인의 지적 성취가 완성되어가는 과정을 추적하고자 하였다. Gardner의 전기적 인물 연구에 의하면, 모든 개인은 <그림 1>에 나타난 것처럼 지적 영역과 분야 사이에서 자신의 지적 능력을 발전시켜 나간다. 이러한 현상은 모든 인간의 발달 과정에 공통으로 나타나지만 각 요소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지능의

유형과 발달 수준이 나타난다.

이처럼 Gardner는 자신의 다중지능이론과 체계적 접근 모형을 근간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비범한 성취를 이룬 것으로 평가받는 인물들에 대한 연구를 많이 발표하였고 현재까지도 그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⁸⁾

이러한 Gardner의 연구 맥락을 따라 문용린(2004)⁹⁾은 다중지능이론과 체계적 접근 모형을 국내 위인의 생애 분석에 적용하였다. Gardner가 다중지능이론의 견지에서 위인들의 비범한 지적 특성에 관해서 개괄적인 평가를 하는 데 치중했다면, 문용린은 생애의 주요 사건들을 추출하고 체계적 접근 모형을 시기별로 적용하여 ‘지적 능력의 계발 과정’ 자체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문용린의 연구 방법을 사용한다.

8) 문용린 외 2인, 「백범 김구의 지적 계발 과정 탐색」, 서울 : 집문당, 2005, p.27~34. 요약

9) 문용린 외 2인, 상계서, 2004

Ⅲ. 안익태의 주요 생애 사건

한 개인의 삶을 재구성하는 전기적 연구에서 인물의 생애를 추적하는 데 활용되는 기법은 연구자의 의도와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일기(diary), 일지(journal), 연구 일지(research journals), 소품문(vignette), 묘사(portrayals), 인물 묘사(portraits), 결정적 사건(critical incidents), 설화(narratives) 등 관점이나 범위 정도에서 차이가 나는 기법들이 존재한다.¹⁰⁾

이 연구에서는 안익태의 생애 전반에 걸쳐 지적 행보에 커다란 영향이나 변화를 가져왔던 주요 생애 사건을 찾고 그 사건을 중심으로 생애를 재구성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1. 섬세한 성격의 음악 신동

안익태는 1906년 12월 5일 평양시 계리 35번지, 안창호, 안중근 등 애국지사들을 많이 배출한 순흥 안씨 집안에서 아버지 안덕훈, 어머니 김정옥 사이의 7형제 중 셋째로 태어난다. 비슷한 또래인 남자 형제만 일곱인 집안은 늘 왁자지껄하고 정신이 없었다. 하지만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안익태는 자기 옷은 꼭 옷걸이에 걸어 보관하여 챙겨 입는 등의 매우 섬세하고 깔끔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이러한 성격은 유학생 시절 중에서도 나타나는데 동경유학시절 집에서 보내준 반찬의 노끈까지 다시 싸서 되돌려 보냈다. 이러한 성품이 그가 작곡을 하거나 지휘를 하는데 있어서 미세한 음정을 찾아 지적하고 음색을 구별하는 등의 음악 활동에 반영된 것 같다고 막내 동생은 말하고 있다.

10) 안태진, 「다중지능이론의 관점에서 본 전혜린의 삶」,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p.34 재인용

안익태의 음악가가 되려는 꿈은 8~9세 때 바이올린과 코넷을 배우면서부터 시작됐다. 일본으로 유학 갔던 형은 음악에 특출한 재능을 보이는 동생을 위해 바이올린을 선물 한다. 그는 바이올린의 애절하고 청아한 소리에 매료되어 하루 종일 연습하여 선교사가 가르쳐준 찬송가를 혼자서 연주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는 바이올린을 배운지 반 년 만에 헨델과 베토벤 곡 등을 연주하게 된다.

이 시대 한국 음악교육의 상황은 기독교계 사립학교의 교육과정에 창가 과목이 있었지만 관립학교는 일본 학제를 모방하고 음악교육이 제외되어 있는 상태였다. 음악을 가르치려 해도 음악을 배운 교사가 없었으며 또한 교재도 없었기 때문에 실제 수업은 어려웠다. 학제가 개정되어 창가 과목이 있어도 기독교 학교에서 가르치는 찬송가, 외국가곡, 또는 민간인들이 세운 사립학교에서 부르는 애국가, 학도가 등의 창가를 불리는 정도에 그치는 하나의 명고에 불과 했으며 음악교육다운 교육이 실시되지 못한 상태였다.¹¹⁾

그 시절 좋은 교사나 좋은 악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그는 스스로 터득하고 연습하여 음악의 신동이라는 찬사를 받게 된다. 또한 안익태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가가 되겠다는 자신의 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늘 입버릇처럼 다짐을 했다. 이러한 확실한 꿈은 그를 급속하게 음악의 세계에 빠져들게 했고 애착을 갖고 끈질기게 연습하여 바이올린과 코넷을 자유자재로 연주하는 신동으로 만들었다.

1914년 평양 종로 보통학교에 입학한 그는 바이올린 공부를 계속하며 학교 취주악대의 트럼펫 소리에 매료되어 부모님을 졸라 트럼펫을 사서 연습한다. 아침에는 바이올린 연습, 저녁에는 트럼펫 연습을 하며 서양 음악의 진미를 자연스럽게 맛보게 된다. 보통학교 1학년 교내 학예회 때 그는 바이올린과 트럼펫 두 악기를 들고 나가서 연주한다. 두 가지 악기를 자유자재로 연주하는 그를 사람들은 “음악의 귀인”이라고 부른다.

11) 현경실 외 12인, 「21세기 음악교육학 총론」, 청원군 : 한국교원대학교 출판부, 2009, p.19

1918년 미션스쿨인 숭실중학교에 입학하면서 본격적인 음악교육이 시작된다. 마우리 박사를 만나면서 안익태는 서울에 가서 첼로 교육도 받는 등 음악가로서의 준비를 한다. 하지만 숭실중학교의 생활은 길지 못했다. 1919년 3·1 운동 관련 수감자 구출운동에 가담하여 퇴교 처분을 받게 된다. 학교를 그만두게 된 그는 일본행을 택한다. 마우리 박사님의 도움으로 한국을 떠나 자신의 꿈을 향한 유학생살이 시작된 것이다. 그는 마우리 박사의 은혜를 갚기 위해 그의 부탁을 가슴에 새긴다.

군은 음악가가 될 수 있는 탁월한 소질을 지니고 있으니 군의 소원인 애국 운동을 음악을 통해서 하게나. 세계 여러 나라 음악가 가운데는 훌륭한 애국자들이 많다네. 민족 음악을 부흥시킨 위대한 작곡가, 지휘자, 군도 그 사람들처럼 애국하는 민족 음악가가 되게나.

마우리 박사의 말은 그에게 있어 제2의 인생 항로가 전개되는 것이었다.

2. 세계 속의 한국인

1) 일본 유학시절

세소쿠 중학교에서 5년간 중학과정을 마친 안익태는 첼로 전공으로 1926년 4월 동경 국립음악학교에 입학한다. 전문 연주자의 길을 선택한 안익태는 자신의 선택에 후회됨이 없이 연습에만 몰두한 학생이었다. 3시간이나 기차를 타고 온 친구도 연습을 한 후에 만났다는 일화도 있다. 이렇듯 안익태의 음악에 대한 열정과 끈기는 그의 스승들도 인정했다.

대표적인 예로 그의 스승 첼리스트 다데 사브로는 동경 국립음악학교 시절의 안익태를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안군과 내가 만난 것은 지금부터 30여 년 전 동경에서 음악공부,
특히 첼로에 흥미를 가지고 나한테로 레슨을 하러 온 것이 그
시작이다. 당시의 안군은 무류(無類)한 끈기의 소유자로 생활형편도
꽤나서 건곤 데가 없다.
결코 좋지 않았으나 오직 전심전력 첼로를 켜던 모습은 지금 생각해도
정다운 생각이 든다. 12)

하지만 일본 유학생 안익태의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다. 그 중 가장 힘든 것이 경제적인 문제였다. 1928년 음악 학교 본과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그는 카페에서 첼로 연주를 하여 생활비를 벌었다. 그에 관련된 일화가 하나 있는데 카페에서 연주자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그는 오디션을 보았다. 하지만 그는 실수를 연발하여 탈락하게 된다. 하지만 뒷줄로 가서 다시 도전하고, 계속해서 도전하며 주인에게 한번만 더 들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여 결국 카페에서 연주할 수 있게 된다. 이 일화를 통해 안익태는 그가 하고자하는 일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갖고 도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일화가 있다.

12) “대담-안익태 씨와의 인터뷰”. 「세계일보」 1960. 3.13

동경국립음악학교에 입학하여 1930년까지 공부할 시기에 교내에 있는 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가 있었다. 때마침 첼로 파트의 한사람이 부족한 사실을 안 안익태는 허락도 없이 끼어들어 연주를 하였다. 놀란 고노에 히데마로 교수는 한 곡목의 연주가 거의 끝날 무렵

“너 누구냐? 언제부터 나왔느냐?”

라고 소리쳤다. 그는 태연했다.

“연습도 하지 않고 덤벼들다니... 안돼. 물러가!”

퇴장을 요구하는 말이 떨어지자 비로소 고개를 들고 간청했다.

“연습은 집에서 벌써 했습니다. 악보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를 입단 시켜 주십시오.”

당돌한 녀석이라고 당장 몰아 낼 것만 같았던 지휘자는 그의 대답하고 진지한 태도에 감복하여 입단을 허락했다.¹³⁾

두 일화를 통해 그는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고 진취적인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일화로 그는 고집과 투지를 가진 학생이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일본 학생들은 복종을 미덕으로 아는 반면 안익태는 의사 표현을 솔직하게 하고 잘못된 판단에는 날카롭게 따지는 성격이었다. 그래서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 독선가, 개인주의라는 비난을 받는다. 하지만 대신 그는 자신의 단점이 나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는 선배나 동료들의 충고는 받아들였다.

2) 미국 유학시절

1930년 가을, 안익태는 좀 더 넓은 세계에서 자신의 음악가의 꿈을 펼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미국에 도착한다. 안익태가 미국에서 제일 처음 찾은 곳은 샌프란시스코 한인교회였다. 그는 교회에서 동포들을 위한 음악회를 열었

13) 이경분, 「잃어버린 시간 1938~1944」, 서울 : 휴머니스트 퍼블리싱 컴퍼니, 2007, p.157

다. 이 음악회는 안익태의 애국심에 큰 영향을 준 계기가 된다. 한인교회에는 태극기가 걸려 있었고, 연주를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연주회 전에 다함께 <올드 랭 사인>곡조에 맞춰 <애국가>를 불렀다. 비록 <올드 랭 사인>곡조의 노래였지만 애국가의 가사와 타지에서 동포들이 불러준 애국가는 그의 심정에 큰 영향을 준 사건이었다. 그는 그때 그 심정을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음악연주 전 여러분과 같이 <애국가>를 부르고 황 목사의 소개로 강대 위에 올라 약 반 시간 동안 연주를 하였는데 대한민국 태극기 아래와 이십여 명 동포 앞에서 연주는 실로 사천여 년 이상의 장구한 역사 아래와 현금 동서 사방으로 헤매는 불쌍한 우리 이천만 동포 앞에서 연주하는 감이었는데 눈물은 제 앞을 가리워 참으로 형언할 수 없는 깊은 감사이었습니다.¹⁴⁾

샌프란시스코를 거쳐 다음으로 정착한 곳은 신시내티였다. 그는 공백 기간 없이 음악원에서 공부를 시작했다. 학업과 함께 그는 신시내티 음악원장인 유진 구스스(Eugene Goosens)의 추천으로 신시내티 교향악단의 제1 첼로연주자로 활동한다. 그는 미국 동부 순회공연을 하게 되는데 그 연주는 조국을 알리는 큰 의미가 있는 공연이었다. 연주회가 끝난 후 군중들에게 한글로 사인을 해주며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를 설명 했다. 즉, 그의 음악으로 코리아가 알려지고, 코리언 음악이 인정되고 한국을 알리는 무대가 된다. 이 연주를 통해 교향악단의 지휘자인 블라디미르 바카라이니코프(Vladimir Bakaleinikoff)도 그의 음악적 소향을 높이 평가하고 인정했다.

1933년 초, 필라델피아로 거처를 옮긴 그는 커티스 음악원과 템플 대학교 음악 대학에 적을 둔다. 그는 필라델피아에서 처음으로 첼로 독주회를 가진다.

14) 안익태, 「대한민국 애국가」, 신한민보, 1936. 3.26

이는 전문 연주자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음을 뜻한다. 또한 필라델피아에 서는 지휘자로서의 경력을 쌓는 시기가 된다. 교회의 지휘자로 활동하던 그는 동양인으로서 최초로 필라델피아 심포니클럽의 보조지휘자가 되었다. 필라델피아 심포니 상임 지휘자 스토코프스키로부터 받은 총애가 각별하여 예배시간에 그를 찾아가 성가대의 찬양을 귀담아 들었다. 스토코프스키는 그를 오케스트라에 입단시키고 부지휘자로 초빙했다. 그는 지휘자로서 1934년 여름에 열린 앵나키 캠프에서 아마추어 관현악단을 조직해 연주회를 열기도 한다. 또 체스트넛 힐 장로교회 성가대 지휘자로도 활동하면서 지휘자의 입지를 굳혀 간다.

그는 이 시기에 첼로 연주자, 지휘자 이외에 작곡가로서의 활동도 한다. 1935년 초에 엘칸-보겔(Elkan-Vogel) 출판사를 통해 자신의 작품을 출간하며 작곡가로서 공식적으로 데뷔를 한다.

그는 작곡 콩쿠르에서 <코리아 판타지>가 입선하여 카네기 홀에서 뉴욕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기회를 갖는다. 설레는 마음으로 무대에 오른 그와는 달리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연주할 태세를 갖추지 않고 잡담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가 지휘봉으로 신호를 하자 그제야 악기를 들기 시작했다. 이는 겉모양만 보고 사람을 평가해 버리려는 미국인들의 그 당시 버릇이었고, 안익태를 무시하고 있는 행동이었다. 또한 연주를 하는 도중에도 지휘자의 사인을 묵살하는 일부 단원들이 있었고 불협화음의 도는 점점 심해졌다. 엉뚱한 소리를 내고도 낮을 붉히지 않는 관악기 주자들의 태도를 참을 수 없게 된 그는 화가 치밀어 올라 지휘봉으로 악보대를 세차게 내려쳐 연주를 중단 시키고 무대를 박차고 나왔다. 이러한 굴욕 속에서 계속해서 지휘를 한다는 것은 신성한 음악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936년 카네기 홀에서의 쓰라린 경험을 뒤로하고 유럽 유학의 설계를 완성시키며 미국을 떠난다.

3) 유럽 유학시절

필라델피아에서 어느 정도 경력을 쌓고 인정을 받은 안익태는 1936년 6월 9일 오스트리아의 펠릭스 바인가르트너(Felix Weingartner)의 사사를 받기 위해 유럽으로 향한다. 그가 처음으로 도착한 곳은 독일의 수도 베를린이다. 그는 자신의 선생 소개장 덕분에 베를린 국립음악학교 작곡과 교수이며, 당시 독일 음악계를 주도하는 세계적인 작곡가 파울 힌데미트(Paul Hindemith)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지도를 받는다.

같은 해 6월 28일 그는 오스트리아 빈에 도착하여 3개월간 바인가르트너로부터 지휘법을 사사 받는다. 또한 바인가르트너의 추천으로 부다페스트 교향악단의 객원지휘자로 서게 된다. 부다페스트에서의 연주회 직후에도 파리와 런던에서 첼로 연주회를 마치고 10월경 뉴욕으로 돌아가지만 1937년 다시 유럽으로 돌아온다. 파리의 교향협회교향악단(Symphony Societe de Paris)과 런던 브리티쉬 방송교향악단(British Broadcasting Company Symphony Orchestra) 객원 지휘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두 음악회는 직업음악가로서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출발점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중요한 음악회였다.

1938년 2월 20일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에서 그는 가장 애정을 갖고 있던 작품 <코리아 판타지>를 처음 연주하게 된다. 이 연주는 아일랜드인의 찬탄을 받고 신문에서도 좋은 평을 받는다.

그 한국인 지휘자가 지휘를 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도 큰 즐거움이었다.
더블린 방송 교향악단
그는 악보도 없이 그의 오케스트라단을 능숙하게 이끌어 감으로써
그 작품들에 대한 그의 이해도와 확신을 보여 주었다.¹⁵⁾

15) 미주 <한인학생회보>. 1938년 2월-3월호(제16권 2호), p.5 및 「세계적 컨덕터 안익태 씨 애란악단서 폭풍적 격찬」, 동아일보, 1938. 4.16 참조

성공적인 <코리아 판타지> 초연을 마친 그는 다시 빈으로 향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에게 사사 받기 위함이었다. 그의 <코리아 판타지>를 본 슈트라우스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그의 스승이 되어 줄 것을 약속한다.

“그대의 음악은 풍부한 감정을 담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 것으로 확신하네.....(중략)..... 유럽에 와서 음악을 연구한다는 것은 서양 음악을 흉내 내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네. 그대는 음악의 골격만 터득하면 그만이야. 그 골격 위에 한국적인 것을 작품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네. 한국엔 사천여 년의 역사가 있지 않는가. 그 희비애락 속에 음악적 소재가 많이 있을 것이 아닌가?”¹⁶⁾

슈트라우스의 쟁쟁한 제자들 중 수제자로 발탁된 그는 스승을 대신 해 1938년 부다페스트 연주회의 지휘를 맡게 된다. 또한 슈트라우스의 건강이 점점 쇠약해지면서 그는 스승을 대신해 지휘할 기회가 많아진다. 그의 명성은 날이 갈수록 유럽 전역에서 높아져 갔다. 이로 인해 그는 1943년 일본 동경국립음악학교에서의 스승인 고노에 히데마로를 제치고 베를린 필하모니를 지휘하게 된다. 베토벤 9번 교향곡의 연주는 뉴스 겸 문화 영화로 촬영하여 유럽 여러 나라에 배급 된다. 독일의 동맹국이었던 만주와 일본까지 건너가 안익태는 세계적인 지휘자로 자리 잡게 된다.

그 후, 안익태는 로마 악단에도 진출하여 <코리아 판타지>를 지휘한다. 그리고 유럽의 여러 도시에서 <코리아 판타지>를 연주 한 후 어느 날 이탈리아 정부 관리로부터 이탈리아를 떠나라는 통보를 받는다. 일본 정부로부터 항의 각서를 받은 이유에서이다. <코리아 판타지>는 항일 사상을 고취시키며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은 완전히 일본화 되어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16) 김경래, 「청개구리들의 만찬」, 서울 : 일곡문화재단, 2002, p.120

유로 그는 이탈리아에서 강제 출국한다. 하지만 그는 파리 교향악단에 초빙되어 전쟁 중인 가운데에서도 성공적으로 연주를 마친다. 그 후 스페인으로 옮긴 그는 바르셀로나 심포니의 초청으로 연주회를 갖는다.

그는 1960년에 드디어 그의 꿈인 런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지휘를 맡는다. 유럽에서의 음악생활을 통해 음악가 안익태로서의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

3. 남다른 한국사랑

1) <애국가>와 <코리아 판타지>

조국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안익태는 스승 다테 사브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한국을 위한 음악을 작곡한다. 안익태가 <애국가>를 작곡하려고 마음먹은 것은 1936년 3월 26일 『신한일보』에 기보된 글을 보면 알 수 있다.

약 5년 전에 미주 상항에 도착하여 많은 감상과 인상을 가지었는데 특별히 제게 가장 깊은 인상을 준 것은 상항 한인예배당 강대 위에 걸린 대한민국 태극기와 제 일생에 처음 부른 <대한국 애국가>이었습니다.

(중략)

미주 온 후 목적인바 몇 가지 하고저 하는 일이 있었는데 제일 급선무로 <대한국 애국가>근작을 깊이 느끼고 작곡하기로 그때 결심하였습니다.

재래로 부르는 <애국가>음악 곡조는 처음 스캇치의 술 노래이었는데 그 후 구주 여러 나라에서 별별히 부르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사랑가로도 부르고 어떤 나라에서는 이별가로도 부르는데 참으로 신성한 <대한국 애국가>로서 그 곡조를 사용함은 대한국의 수치인 줄로 자각하였습니다.

17)

샌프란시스코에서 <애국가>를 접한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신묘한 악상이 떠오르기를 기다렸다. 1936년 6월 초, 베를린에서 생활하고 있던 그는 꿈결에 귓전을 스치는 멜로디에 충동을 받고 깨어나 악상을 오선지에 적었다. 이렇게 애국가는 극적으로 한순간에 완성된다. 그는 악보에 반주곡을 붙여 샌프란시스코의 대한국민회 앞으로 보낸다. 국민회 요인들은 한인 교회 사택에서 애국가 개창식을 가진다. 하지만 국내는 아직 일본의 통치아래 있던 터라 쉽사리 전해질수 없었다. 하지만 애국가는 미국 내의 많은 교포와 유학생들에게 알려지고 중국 상해 대한민국 임시 정부로도 발송 되었다. 이렇듯 애국가는 낯선 대륙에서 간신히 그 명맥을 유지했다. 은밀히 국내에도 전파되고 있었으나 일경의 감시로 보편화 되지는 못했다. 8.15 해방 후 중국과 미국 등지로 망명했던 광복 투사들이 귀국하면서 안익태작곡 <애국

17) 전정임, 「안익태」, 서울 : 시공사, 1998, p.170

가>가 소개되고 불리기 시작했다. 1948년 독립을 선포한 우리나라는 드디어 <애국가>를 대한민국의 국가로 채택한다.

1936년 <애국가>와 함께 <코리아 판타지>가 완성된다. <코리아 판타지>는 일제의 침략 아래 신음하는 한국 민족의 자유와 해방의 날을 숙원 하는 심정을 묘사한 음악이다. 베토벤 교향곡 제9번의 형식이 도입된 이 곡은 조국의 미래상을 예언한 음악이다. 애국가가 반복되는 마지막 합창의 가사는 로마자로 표기한 우리말이다. 그는 어떤 나라에서 연주를 하던 합창 부분은 반드시 우리나라 발음으로 부르게 했다. 발음에 약간 무리가 있어서 반대하는 곳도 있었으나 그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안익태 해설에 의하면 <코리아 판타지>는 다음과 같은 악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호른의 솔로로 곡이 시작되는 것은
 한국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연상시키며
 하프와 플루트는 평화스럽고 소박한 산촌과 전원을,
 그리고 복된 민족임을 묘사한 후 흥겨운 민속 무용곡으로써
 삶의 양상을 비쳐 본다.

이때 돌연 냉혹하고 포악한 가락이 박두하여 비애를 확산시킨다.
 일제의 살인, 약탈, 탄압, 여기에 대항하는 한민족의 울분이 폭발한다.
 살아남은 동포는 자유와 해방을 위해
 그리고 숨겨진 수많은 영령들을 위해 경건한 추모를..
 그러나 해방의 길은 아직도 묘연하다.
 항거가 계속되는 동안 영광스런 그날이 온다.
 승리의 찬가가 솟아난다. 애국가인 것이다.
 고난과 압박에서 벗어나 영원한 평화와 번영을 기약하는
 백의 민족만의 가락이다.

<코리아 판타지>는 유럽에서 음악을 공부하는 안익태가 서양 음악을 흉내 내기만 하는 것이 아닌 음악의 골격만 터득하여 그 골격 위에 한국적인 것을 작품화 시킨 것이다. 한국의 사천년 역사의 희노애락 속에 있는 음악적 소재를 사용하여 완성시킨 작품으로 그에게 큰 의미가 있는 작품이다.

그의 연주 프로그램에는 <코리아 판타지>가 항상 포함된다.

2) 국제음악제

1962년 5월, 안익태의 헌신적인 노력과 정부의 과감한 후원, 의욕적인 음악인들의 협력으로 국제음악제가 개최 되었다. 이 음악제의 목적은 청소년들에

게 새로운 음악과 더 넓은 안목을 심어주고 음악을 대중화하며 노래의 민속화를 위함이었다. 제1회 국제음악제는 준비기간이 짧아 불충분한 연주를 보여준 점을 제외하고는 정부의 도움으로 프로그램이나 연주들도 기대 이상으로 성공적이었다.

제1회 국제음악제를 통해 오랜 시간의 준비기간이 필요함을 느낀 그는 1962년 12월, 제2회 국제음악제를 위해 서둘러 귀국 한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정부의 발뺌으로 1회보다 더 힘든 준비기간을 갖는다. 그는 정부가 아니라면 민간의 힘으로라도 국제음악제를 개최하겠다는 결심을 한다. 국내 일부 음악인들과의 불협화음도 가세하여 제2회 국제음악제는 청소년을 위한 행사로 그 성격이 변화되었다. 초청된 외국 연주자들은 거의가 안익태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던 사람들로 한국의 음악발전과 안익태를 돕기 위해 무보수로 참여해 준 사람도 많았다. 15일간 무리한 진행이었지만 민간의 힘으로 불가능해 보였던 행사를 치러 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강요당했고 안익태의 독선적인 태도가 부각되며 안익태 개인의 원맨쇼 같은 인상을 남긴 음악회로 보여 점점 국내 음악인들의 불만은 쌓여갔다.

서울시가 주최 하겠다고 나섰던 제3회 국제음악회는 서울시가 중도 하차를 해버리면서 힘든 준비가 된다. 프로그램도 대폭 축소하고 낮 공연도 없애고 전체 일정도 축소하게 된다. 하지만 여섯 명의 외국 연주자들의 무보수 출연의 도움을 받으며 음악회를 만들어갔다. 개막연주는 별 무리 없이 끝났으나 둘째 날부터 진행상 여러 가지 문제와 지휘자의 사고, 셋째 날 지휘자와 연주자와의 마찰 등으로 연주회는 얼룩지기 시작한다. 게다가 니콜로프의 <애국가> 표절 시비 기자 회견도 연주회 중에 일어난다. 이러한 문제들을 안고 제3회 국제음악제는 힘겹게 막을 내린다.

이러한 많은 일들로 인해 안익태는 국제음악제에 대한 애착이 더 생기게 된다. 제4회를 준비하기 위해 내한하여 서울시 협조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지만 거절당한다. 고집 하나로 버티고 준비했던 음악제는 모든 길이 다 막혀 버

리고 그는 착잡한 심정으로 대통령 앞으로 편지를 남기고 고국을 떠난다.

제1,2,3회를 계속한 서울국제음악제를 5월 혁명정신의 계승으로나 제1회 국제음악제가 혁명 1주년 기념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으로 보나 박 대통령의 성원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으로 보나 계속되어야 할 국제적인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요구한 최저선인 시향의 출연 협조와 공연장소의 제공을 거절당함으로써 초청한 외국출연자들과 그 국가들에 대한 국가적 체면과 개인 개인에 대한 무안한 감을 금할 수 없으나 부득이 중단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내 조국에 하루 속히 음악문화정책이 확립되어지기를 바라며 떠나가렵니다.¹⁸⁾

18) 전정임, 상계서, p.82

IV. 안익태의 지적 능력 계발 과정

이 장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안익태의 주요 생애 사건 속에서 나타나는 그의 지적 능력을 다중지능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평가하고, 체계적 접근 모형을 적용하여 그 지적 능력의 계발 과정을 분석한다.

1. 안익태의 지적 능력

Gardner의 다중지능이론에 근거하여 안익태의 지적 능력을 분석·평가하면 음악지능, 자기성찰지능, 인간친화지능이 강점으로 나타나는데, 이 세 가지 지능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음악지능

안익태의 전 생애에 걸쳐 가장 두드러진 지적 능력은 음악지능이다. 그는 어린 시절 기독교의 찬송가에 끌려 예배당을 찾아가 풍금과 악보를 접한다. 이는 그가 어릴 때부터 소리에 대한 남다른 재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음악에 특출한 재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14년 평양 종로보통학교에 입학한 그는 바이올린과 코넷 뿐 아니라 트럼펫까지 연주하게 된다. 바이올린을 잡은 지 반 년 만에 그는 헨델의 <라르고>와 베토벤의 <미뉴에트 G장조>등을 연주한다. 또한 8살의 그는 첫 학예회 때 바이올린과 트럼펫 두 악기를 자유롭게 연주한다.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음악의 귀인“이라고 불렀다.

중학교 1학년에 첼로까지 연습하여 한국의 첼로 연주자의 선구자가 된다. 다중지능이론에 의하면 소리에 민감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음악지능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는 이미 어린 시절부터 음악지능이 발현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성인이 되어서는 신시내티 교향악단의 제1 첼로 연주자로, 1933년 필라델피아 심포니클럽의 보조지휘자로 시작하여 앵나키 캠프 관현악단, 더블린 방송 교향악단, 마요르카 교향악단, 런던 필하모니 심포니 오케스트라, 베를린 필하모니, 런던 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등의 지휘자로 활동한다. 그는 스승의 추천과 초대로 많은 오케스트라의 지휘를 맡게 된다. 또한 1935년 <애국가>와 1936년 <코리아 판타지>, <논개>등 한국 음악적 요소를 고집한 다양한 작곡 활동을 하였다. 1938년 2월 20일 아일랜드에서 <코리아 판타지>의 초연은 매체로부터 좋은 평을 받게 된다. 또한 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애국가>의 작곡가로서 한국인 최초로 문화포장을 받는다. 이렇듯 그의 생애에 걸쳐 가장 돋보이는 지능은 음악지능이라 평가할 수 있다.

2) 자기성찰지능

안익태는 음악지능과 더불어 자기성찰지능이 높다. Gardner에 의하면 자기성찰지능은 누구나 어느 정도는 가지는 보편적인 지능이지만, 안익태와 같은 예술가에게 특히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안익태는 교회에서 접한 서양음악과 악기를 통해 어린 시절부터 자신에게 음악적 재능과 재치, 열정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에 일찍이 자신의 꿈을 확고하게 세운다. 이처럼 자신의 장·단점을 알고 자기 내면의 동기와 욕구를 정확히 판단하여 이에 적절한 행동을 취하고 꿈을 가지는 것은 다중지능 중 자기성찰지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1919년 3·1 운동 사건으로 감옥에 가고 학교에서 퇴학당하지만 이러한 고통스러운 경험 이후에도 음악을 포기하지 않고 음악으로 승화시켜 세계에 한국을 알리는 지휘자가 된다.

3) 인간친화지능

안익태의 지적 능력 중 강점으로 나타나는 또 하나의 능력은 인간친화지능이다. 인간친화지능이란 인간관계 측면의 능력인데,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동기, 바람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그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능력이다.

그는 많은 나라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면서 극찬을 받고 성공적인 연주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연주자들을 잘 이해하고 잘 이끌었던 것으로 인간친화지능이 높았음을 보여준다. 일본 유학시절 학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1원이 없어 대음악가의 연주를 들을 수 없었던 그는 음악이 돈 있는 계층들만의 독점물이 아닌 값싼 입장료에 무보수 연주를 주도하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었다. 고국에서의 국제음악회를 열었던 그는 유명한 연주가 초빙의 대가는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하며 대신 많은 청소년들에게 음악을 들려줘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이 국제음악회를 위해 초빙한 연주자들은 그의 부탁으로 무보수로 참가 해 주는 경우도 많았다. 이는 그의 인간친화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안익태는 위의 세 가지 지능 이외에도 논리수학지능도 발달하였는데 이는 작곡이란 분야가 논리적인 사고 없이는 불가능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에게서 나타나는 논리수학지능은 보통 수학자나 과학자에게서 발견되는 논리수학지능과는 다른 성질의 지능일 것이다.

안익태는 신체운동지능 역시 발달한 것으로 평가된다. 1936년부터 시작한 지휘는 음악지능을 포함해야하는 분야이지만 지휘만을 놓고 보았을 때 온 몸을 사용하여 음악을 만들고 연주자를 이끌어 가야하는 행위이다. 또한 그는 왜소한 체구였지만 지휘를 통해 음악을 충분히 표현했던 사람으로 신체운동지능이 발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신체운동지능이 뛰어난 운동선수나 무용가에 비해 약하게 발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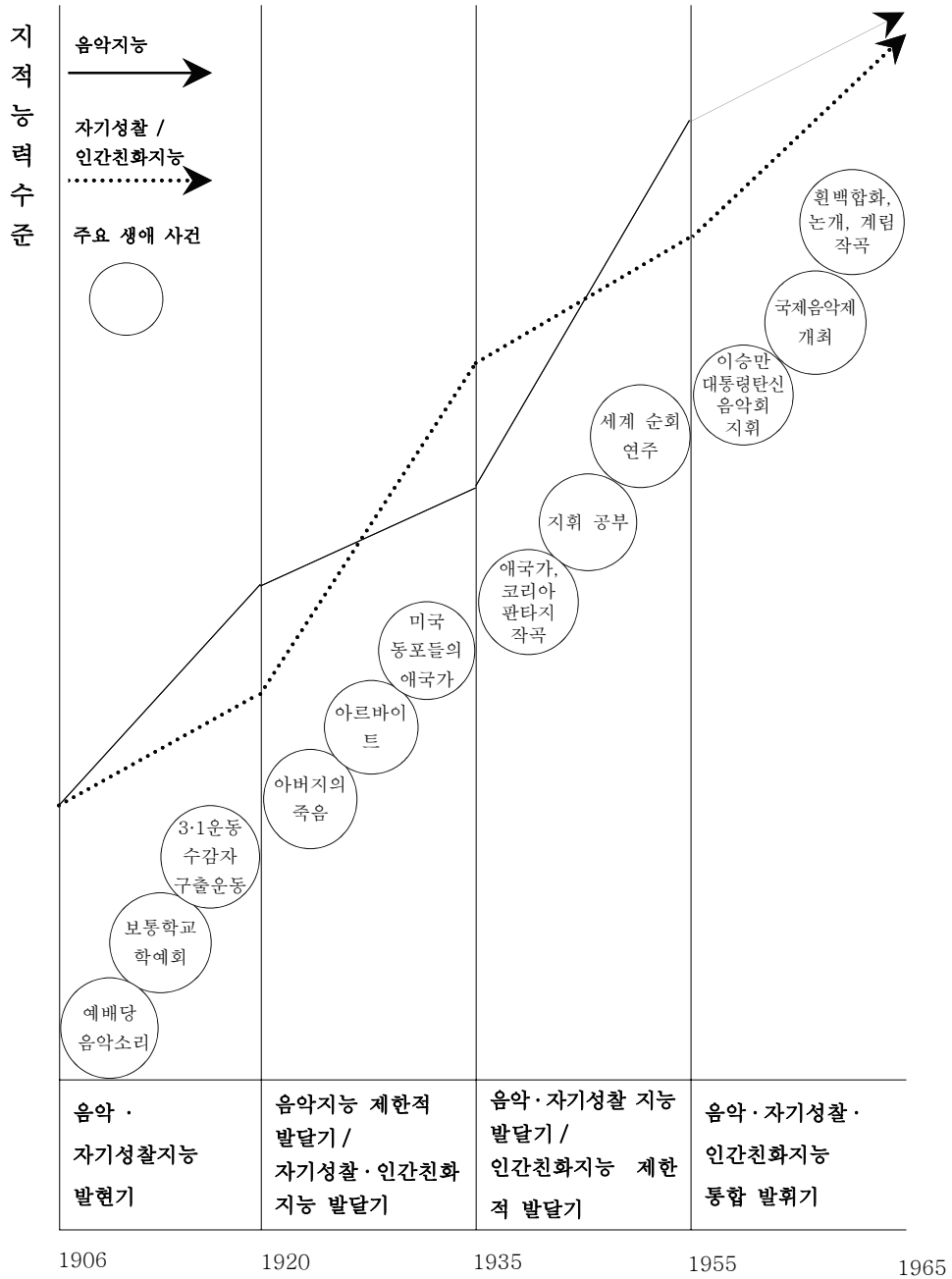
반면, 언어지능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상대방을 설득시키

기 위해 자신의 상황과 입장, 의견 등을 편지로 호소해 보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언어지능은 다른 지능에 비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언어적 약점은 그의 강력한 음악·자기성찰·인간친화지능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그 밖에 그가 공간·자연친화지능을 발휘하는 모습은 발견되지 않는다.

2. 지적 능력 계발 과정

안익태의 생애사에 Gardner의 체계적 접근 모형을 적용하면, 개인(I)·영역(D)·분야(F)간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그의 고유한 지적 능력인 음악지능, 자기성찰지능, 인간친화지능이 계발되는 과정을 발견할 수 있다. 그 특징에 따라 구분하면 <그림 2>와 같이 4분기로 나눌 수 있다.

<그림 2> 안익태의 지적 능력 계발 과정



1) 음악·자기성찰지능 발현기

‘발현(發現·發顯)’의 사전적 의미는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나 보임. 또는 드러나게 함’이다. 19) 이 기간에 안익태는 잠재되어 있던 음악지능과 자기성찰지능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 기간을 ‘음악·자기성찰지능 발현기’라고 표현한다.

평양에서 태어난 안익태는 어린 시절 예배당에서 처음으로 음악을 접하게 되고(F), 즉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그는 음악적 재능과 관심사가 발현 될 수 있었고, 바이올린과 트럼펫의 연주를 배우며(D) 음악가가 되려는 꿈을 갖게 된다(I). 즉, 자기성찰지능이 발현하기 시작한 것이다.

평양 보통학교 시절에는 정규 음악 수업을 받지 못했지만(F) 1학년 학예제에서 여러 악기를 자유자재로 연주하여(D) 신동으로 불린다. 이 때문에 안익태는 자신의 장점을 객관적으로 다시 파악하게 되었고, 음악에 대한 열정을 키워나간다. 즉, 자기성찰지능이 발현되도록 한 요소가 된다.

그 후 미션 스쿨인 숭실중학교(F)로 진학한 안익태는 비로소 본격적인 음악 수업(D)을 받게 된다. 그 시절 안익태의 음악적 재능을 알아보고 큰 도움을 주었던 사람은 마우리 박사(F)였다. 그는 선교사로 내한하여 숭실대학교와 숭실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평양 장대현장로교회에 한국 최초로 남성합창단과 소녀합창단, 밴드부를 조직한 음악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는 사람이었다. 마우리 박사의 도움으로 안익태는 숭실중학교 시절에 첼로 공부(D)를 시작하게 된다. 평양에서는 첼로선생이 없어서 첼로를 배우기가 힘들었다(F). 그래서 안익태는 서울을 오가며 선교사인 조지 그레그(G. Gregg)에게 배웠다(F). 이 모든 일은 안익태의 음악지능이 발현되도록 영향을 준 요인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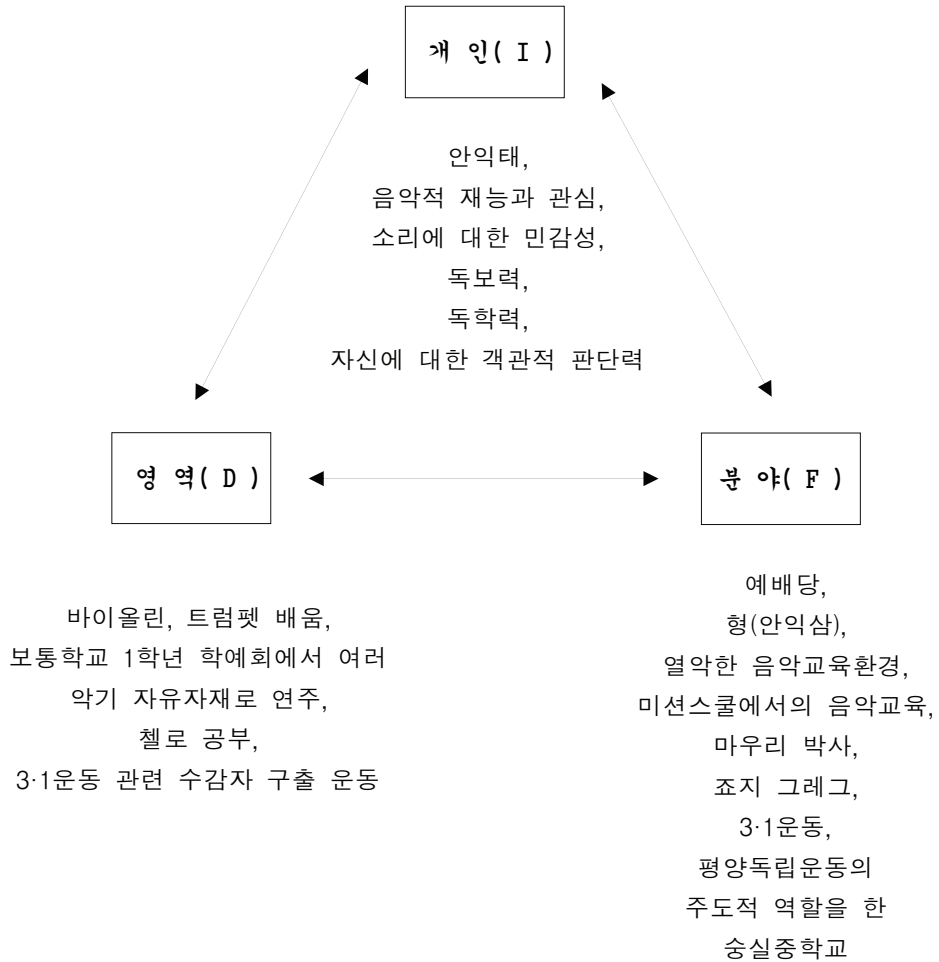
그러나 그가 원하던 음악공부를 마음껏 할 만한 조건이 갖춰진 숭실중학교 시절은 그리 길지 못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F) 숭실중학교는 평양 독립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한 학교였는데 안익태도 ‘3·1운동 관련 수감

19) 교학사 출판부 편, 「새 국어사전」, 서울 : 교학사, 2004, p.705

자 구출 운동'에 가담(D)했다가 일경의 지목 대상이 되어 퇴교처분(D)을 받게 된다. 이 사건으로 그는 큰 민족의식을 갖게 되며 이는 자기성찰지능을 더욱 발달하게 한 요인이다.

그의 퇴교처분을 안타깝게 여긴 마우리 박사는 안익태가 일본 유학(F)을 갈 수 있도록 주선 해 준다. 안익태는 마우리 박사의 말을 마음에 새기며 음악을 통해 애국운동을 하기로 다짐한다. 이 역시 자기성찰지능을 발현시키는 사건이다. <그림 3>은 '음악·자기성찰지능 발현기'를 체계적 접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3> 체계적 접근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음악·자기성찰지능 발현기'



<그림 4> 첼로를 배운 안익태



(자료출처 : 애국가와 안익태)

2) 음악지능 제한적 발달기 및 자기성찰·인간친화지능 발달기

‘제한(制限)’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한도, 어느 한도를 넘지 못하게 함’이다.²⁰⁾ 그리고 ‘발달(發達)’의 사전적 의미는 ‘성장함, 진보함’이다.²¹⁾

음악지능이 제한적으로 발달하지만 자기성찰·인간친화지능이 발달한 때는 안익태가 숭실중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고 일본으로 유학(F) 갔을 때의 시기이다. 유학 시기 중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자신의 음악지능을 발달시키기보다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만 하는 시기로 자기성찰·인간친화지능이 발달한다.

마우리 박사의 도움으로 일본 세소쿠 중학교(F)에 첼로 특기자로 입학한 그는 5년간의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1926년 동경 국립음악학교에 진학하여 첼로 전문 연주자(I)의 길을 걷게 된다. 공부를 하던 중 1928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그의 경제적 상황은 어려워진다(F). 학비조달에 지쳐버린 그는 일본의 음악학교와 음악학원의 강사(D)로 나가게 된다. 강사 출강 아르바이트는 그에게 좋은 경험이 되기는 하였지만 학비, 생활비를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고급식당에서 첼로연주를 이용하여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오디션을 본다(D). 몇 번 떨어지지만 포기 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D)하여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극복하려 한다. 마침내 빨간 유니폼을 입고 바라던 첼로연주(D)를 하게 된 그였지만 그는 아는 사람이 식당에 오지 않기를 빈다. 이렇듯 이 일을 즐기면서 하지는 않지만 그는 자신의 상황이 직업의 귀천을 가릴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을 그만둘 수 없었다(F). 이러한 사건들을 보아 그는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자기성찰지능을 발달시키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인간친화지능이 발달한 사건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그 도움을 잊지 않고 보답한다. 그는 동경 국립 음악학교에서 사고로 첼로

20) 교학사 출판부 편, 상계서, p.1659

21) 교학사 출판부 편, 상계서, p.698

를 깨뜨린다. 그러자 그의 동기생 하나마루는 첼로를 기증(F)한다. 친구의 뜨거운 우정에 보답하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 첼로로 성공리에 졸업연주(D)를 마치고 미국유학까지 가게 된다. 또한 등록금의 미납으로 졸업을 못할 위기에 처한 그를 한포오드 교수의 도움(F)으로 멋진 졸업 연주를 마치고 졸업장(D)을 받는다. 이러한 예는 그가 동기생이나 교수들과의 인간친화지능이 뛰어났음을 보여준다.

그는 복종을 미덕으로 여기는 일본 사람들(F) 사이에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 의사 표현을 솔직하게 하며 잘못된 판단에는 날카롭게 따지는 성격(I)이었다. 그러한 안익태의 성격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는 그에게 자신의 잘못된 점이나 부족한 점, 단점을 말해주는 선·후배, 스승(F)과의 관계는 좋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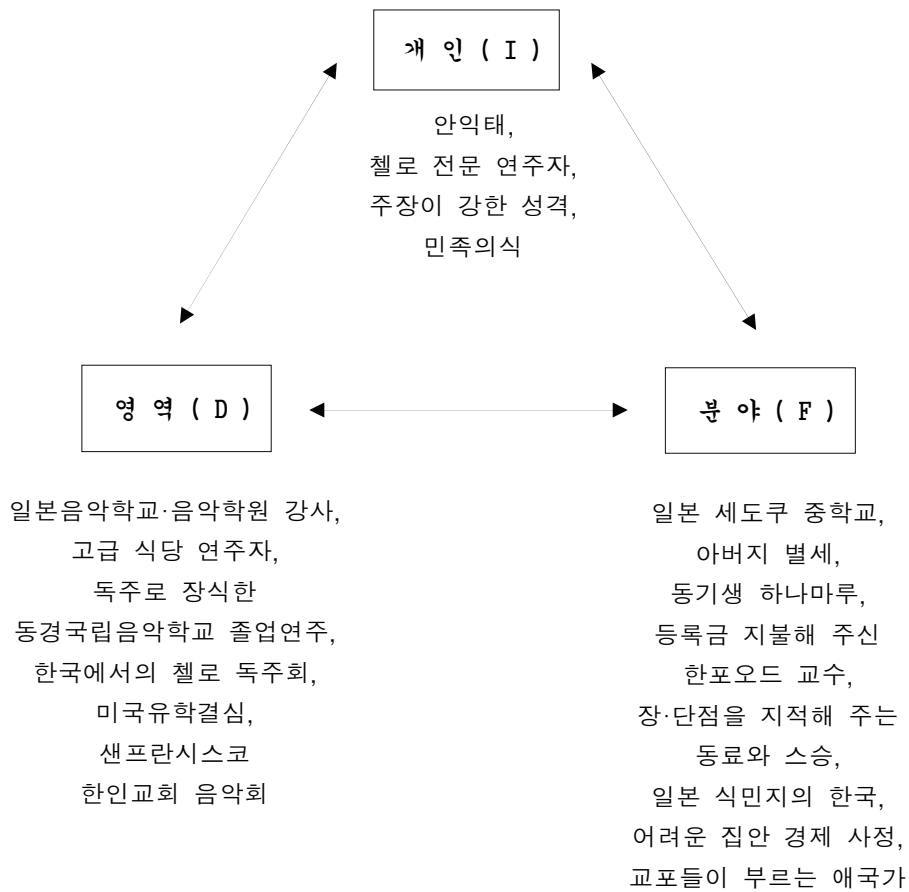
졸업을 한 후, 그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연주회(D)를 갖는데 변해버린 조국의 모습에 실망하고 안타까워한다. 일본에게 조국을 내어 준 위정자를 저주하고 싶을 정도였다. 착취하는 일본인들을 보기 싫어 다른 나라로 떠나는 동포들을 보며 안타까워한다. 그는 이러한 조국의 동포들을 위해 또다시 독주회를 열고 자 하지만 일본 경찰의 횡포(F)로 물거품이 된다. 그는 더 이상 한국에 남아 있을 의미를 상실하고 미국으로 향한다(D). 그의 어머니는 땅을 팔고 동생들 먹이고 입혀야 할 귀중한 돈을 미국유학을 떠나는 안익태에게 쥐어준다(F). 그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맛보며 성공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다짐(I)을 한다.

안익태는 좀 더 넓은 세계로의 도약을 위해 미국 유학(F)길에 오른다. 그는 미국에서 제일 먼저 샌프란시스코의 한인교회에서 음악회(D)를 열고 거기서 교포들이 부르는 <애국가>를 듣게 된다(F). 이 노래는 잊고 있었던 민족의식을 깨우는 사건이었다. 한국을 떠나오기 전 음악으로 애국운동을 하기로 한 다짐을 다시 하게 된다. 다른 나라의 이별 곡에 가사를 붙여 부르는 애국가를 꼭 자신의 손으로 작곡하겠다는 다짐을 한다. 이는 자기성찰지능이 발달하는

사건이다. 한인 교회에서 사람들과 함께 연주하고 즐기며 인간친화지능도 발달한다.

이 기간 안익태의 음악지능에 대해 살펴보면, 그가 음악에 관련된 일을 하기도 하지만, 그 일 또한 자신의 힘든 경제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기간에는 자기성찰지능과 인간친화지능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일종의 보조적 역할을 한 음악지능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는 '음악지능 제한적 발달기 및 자기성찰·인간친화지능 발달기'를 체계적 접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5> 체계적 접근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음악지능 제한적 발달기 및 자기성찰·인간친화지능 발달기'



<그림 6> 첼로 독주회 후 지인들과 함께



(자료출처 : 애국가와 안익태)

3) 음악지능·자기성찰 발달기 및 인간친화지능 제한적 발달기

샌프란시스코를 거쳐 필라델피아에 정착한 안익태는 신시내티 음악원(F)에 입학하였고 동시에 신시내티 교향악단의 첼로수석주자로 활동(D)하였는데 그 당시 지휘자인 블라디미르 바카라이니코프(F)도 안익태의 음악적 자질에 대해 매우 만족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 후 1932년 필라델피아 커티스 음악원(F)으로 옮겨 작곡과 지휘공부(D)에 전념하게 되었고 특히 레오폴드 스토코브스키가 이끄는 필라델피아 교향악단의 공연(D)은 그에게 좋은 교육이 된다. 그 후에 스토코브스키의 권유로 필라델피아 교향악단의 연습단원으로 입단하여 세심한 관찰을 통한 지휘공부(D)를 하게 된다.

커티스 음악원을 졸업하던 1935년 안익태는 엘칸-보걸사의 의뢰로 작품을 출판(D)하는 행운을 얻게 되어 그에게는 첼리스트, 지휘자, 작곡가(I)라는 세 가지 수식어가 모두 붙게 되었다. 또한 같은 해 11월에는 안익태가 미국에 도착한 1930년부터 염두에 두었던 <애국가>의 작곡을 완성(D)한다. 이 악보는 한인 교포가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퍼져 나갔다. 1936년 6월 미국에서 유럽(F)으로 옮겨 간 그는 오스트리아의 세계적인 지휘자인 펠릭스 바인가르트너(F)로부터 지휘법을 배웠다(D). 또한 그의 재능을 인정한 바인가르트너의 추천을 통해 헝가리 부다페스트 교향악단의 객원지휘자(D)로 유럽무대에 데뷔한다. 좋은 교사를 만남으로써 그의 음악적 재능을 다시 한 번 객관적으로 인정받고 또 더욱 발달시킬 수 있는 환경이 된다.

바인가르트너는 20세기 전반을 대표하는 지휘자 중의 한사람으로 특히 베토벤 작품 해석으로 명성이 높았다. 이로 인해 안익태는 베토벤 교향곡(F)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연구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그의 곡도 베토벤 교향곡의 형식으로 작곡된 곡이 있다. 이는 교사가 학생에게 주는 영향력을 보여주며 안익태는 바인가르트너의 영향을 받아 베토벤의 곡에 대해 더 연구하게 되어 닳아가면서 자기성찰의 지능이 발휘된다.

그 후 그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학교생활에 전념하여 1937년 템플 대학의 음악학 석사학위(D)를 받으며 학생이 아닌 전문 직업 음악가의 신분으로 파리, 런던 교향악단의 객원지휘자(D)가 된다. 예정된 연주를 마치고 한국을 돌아올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그는 예상하지 못한 많은 연주들로 인해 명성은 더욱 높아지면서 한국에 들어오기 힘들어졌다. 이 시기에 안익태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스승이자 후원자였던 독일의 리하르트 슈트라우스(F)를 만나 도움을 받으면서 더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후원을 통해 안익태는 수많은 교향악단의 객원지휘(D)를 맡아 유럽을 누비면서 명성을 쌓게 되었다.

안익태는 1938년부터 헝가리 리스트음악원(F)에 특별장학생으로 입학하여 민족주의기법의 작곡가인 졸탄 코다이(F)에게 작곡이론을 배웠다(D). 연주자, 지휘자 뿐 아니라 작곡이론 영역까지 배우며 음악지능이 발달한다.

1946년 마요르카(F)에 정착한 안익태는 마요르카 교향악단의 초대 상임지휘자로 취임(D)한다. 마요르카에 머물며 오케스트라 지휘와 작곡에만 몰두하던 안익태가 다시 세계무대로 눈을 돌린 것은 1950년 한국전쟁(F)이 계기가 되었다. 한국전쟁에 관한 소식을 듣고 몹시 괴로워하던 그는 <코리아 판타지>를 재검토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자신이 조국을 알리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음악뿐이라는 생각으로 세계 각 나라의 오케스트라에 연주회를 제안했다. 이는 자신의 영역에 있어서 한국을 알리기 위한 방법을 찾아 실천하려고 한 사건으로 자기성찰지능이 발달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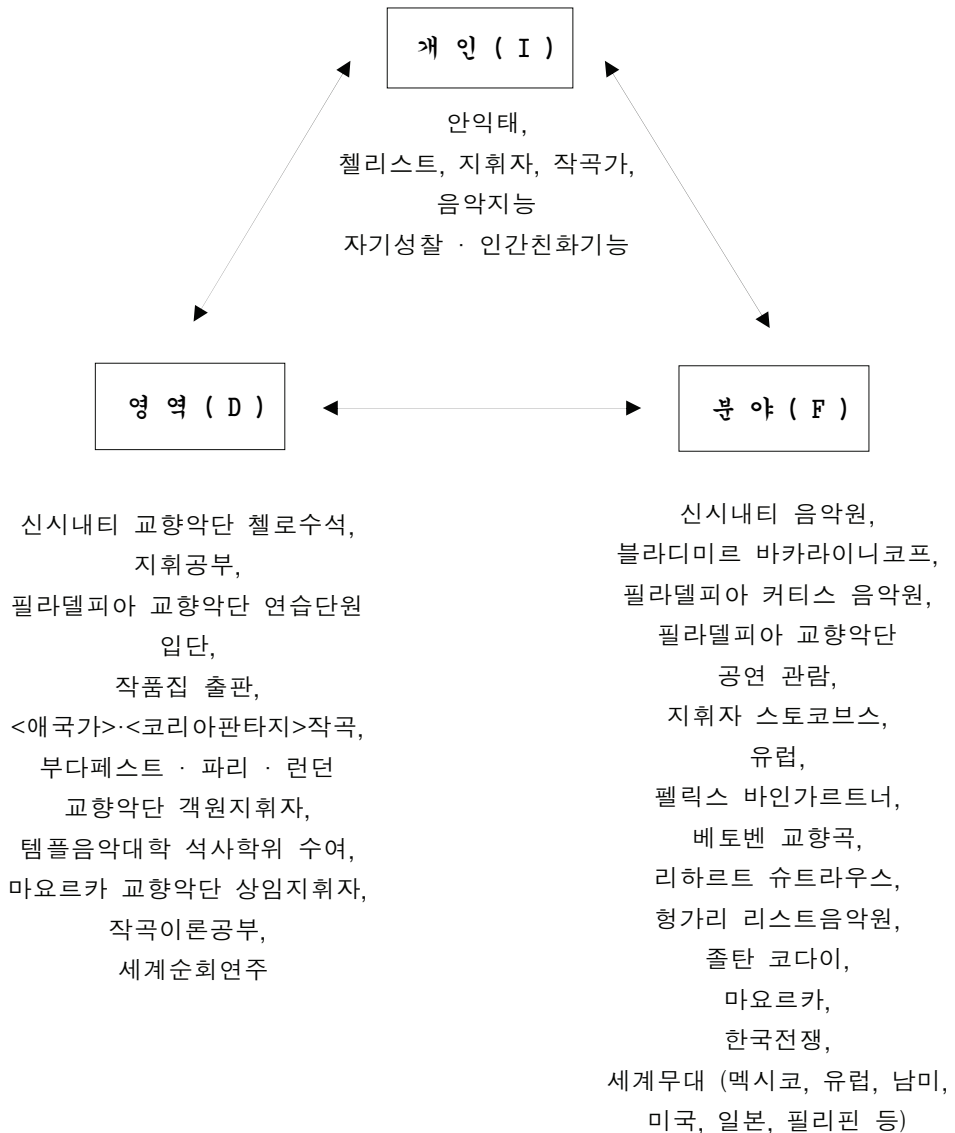
그 노력의 결과로 1952년 멕시코 순회연주를 하게 되고 호평과 함께 <코리아 판타지>이 큰 성공(D)을 거두게 되면서 다음 연주회의 재계약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안익태는 슈트라우스의 추천을 통한 유명 오케스트라의 객원지휘자였던 것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지휘봉을 드는 자신감을 얻었다. 독립한 음악가로써 진정한 음악지능이 발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 후에도 안익태는 세계적인 명성을 쌓으며 유럽, 남미, 미국, 일본, 필리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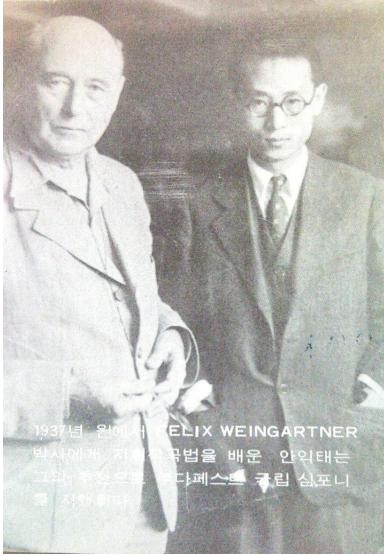
등 여러 나라를 순회하면서 지휘(D)를 하였다. 이는 한국을 알리기 위함도 포함되어 있었고 자신이 한국 사람임을 알리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였다. 이는 자기성찰지능과 음악지능이 함께 발달한 것이다.

안익태는 바쁜 연주일정으로 인해 마요르카 교향악단에서의 역할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자 1959년 상임지휘자 역할을 사임하고 더욱 본격적으로 세계를 무대(F)로 활동하였다. 그는 연주를 통해 새로운 한국과 한국인의 이미지를 심어주었고, 세계 속에 한국인의 상징이며 우리 겨레의 영광스러운 별로 자리 잡으며 한국을 알리는데 공헌 하였다. <그림 5>는 '음악지능·자기성찰 발달기 및 인간친화지능 제한적 발달기'를 체계적 접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7> 체계적 접근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음악지능·자기성찰 발달기 및 인간친화지능 제한적 발달기'



<그림 8> 펠릭스 바인가르트너
사사와 함께



(자료출처 : 애국가와 안익태)

<그림 9>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사사와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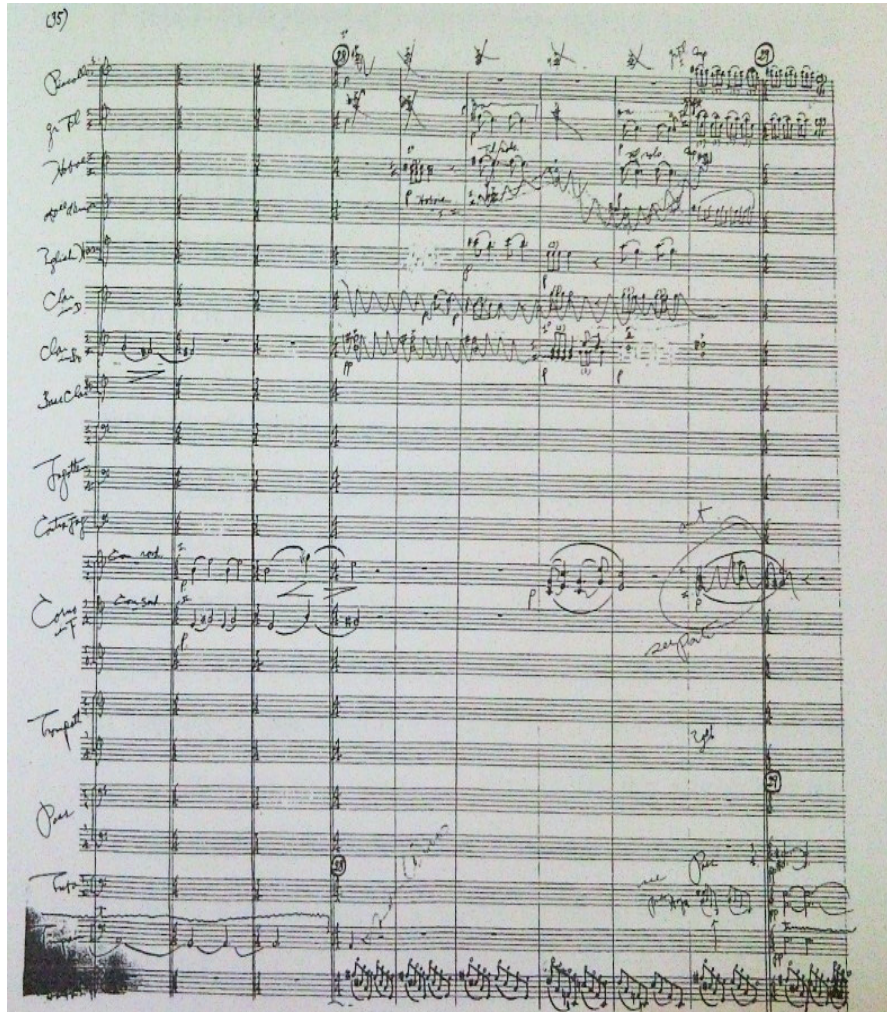
(자료출처 : 애국가와 안익태)

<그림 10> 멕시코 Guanahato 시립심포니 연주



(자료출처 : 애국가와 안익태)

<악보 1> <코리아 판타지> 친필 악보의 일부분



(자료출처 : 안익태)

4) 음악지능 · 자기성찰 · 인간친화지능 통합 발휘기

'통합(統合)'의 사전적 의미는 '모두 합쳐 하나로 만들'이다.²²⁾ 그리고 '발휘(發揮)의 사전적 의미는 '재능이나 능력 따위를 충분히 밖으로 드러냄'이다.²³⁾ 이 기간에 안익태는 음악 · 자기성찰 · 인간친화지능을 모두 발휘하면서 지휘, 한국을 위한 연주, 국제 음악제 개최 등을 하였다. 따라서 이 기간을 '음악 · 자기성찰 · 인간친화지능 통합 발휘기'라고 표현한다.

안익태의 음악 지능이 성공적으로 계발되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지휘자로 활동(D)하고 있을 무렵, 그는 지휘자로 이승만 대통령의 특별초청(F)을 받아 귀국하게 된다. 이승만 대통령의 탄신 축하음악회의 지휘자(D)로 초청 된 것이다. 축하식은 2백여 명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가 그의 지휘 하에 연주되었다. <애국가>는 5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과 함께 불려졌다(D). 탄신축하연주회에서 연주된 <코리아 판타지>로 그는 조국의 음악 수준에 놀랐고 발전 가능성을 발견(D)했다. 기량이 뛰어나지 않았던 오케스트라 단원(F)들이었지만 안익태로 인해 교향악단의 음색과 연주는 바뀌었다.

그가 세 번째로 한국에 방문했을 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고 박정희 정권이 수립된 시기(F)였다. 세계순회연주 중에 한국을 방문한 그는 박정희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서울국제음악제를 추진(D)하게 되었다. 정부의 주도로 화려하게 막 올린 제1회 국제음악제는 순차적이고 빠르게 진행되었다. 음악제에는 앙드레 나바라, 니카놀 자바레타, 에밀리오 리블리, 로마 실내악단이 초청에 응했다. 제2회 국제음악제는 정부의 도움(F)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추진해 나간다. 초청하기로 예정된 연주자들에게 상황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해 무보수로 출연(F)하게 된다. 이는 그의 인간친화지능이 높았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는 제2회 국제음악제를 가난한 학생들과 교사들을 위해 우수한 외국 음악가들의 재능을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진행

22) 교학사 출판부 편, 전계서, p.19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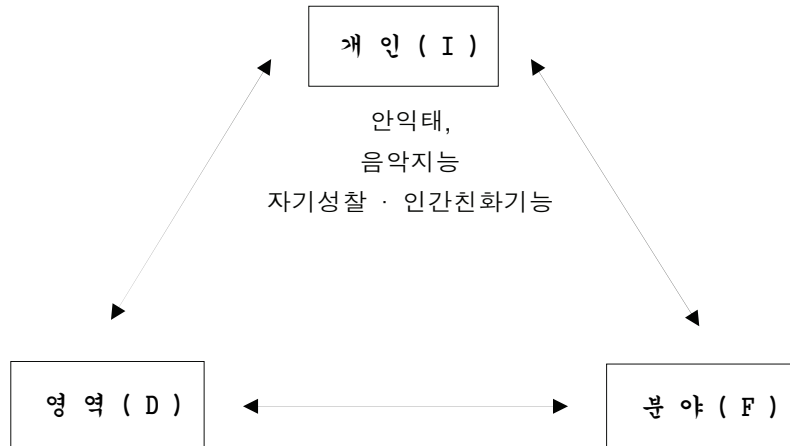
23) 교학사 출판부 편, 전계서, p.705

했다. 한국에 재질 있는 어린이들에게 좋은 여건을 제공하고 재질을 개발하여 한국음악의 장래를 밝게 하고자 하는 자신의 꿈을 반영하는 행사였다. 서울시의 갑작스런 발빠름으로 더 악조건이 된 제3회 국제음악회는 또다시 외국인 연주자들을 개별적으로 설득하여 출연 요청을 받아낸다. 그는 <흰 백합화>를 작곡(D)하여 제3회 국제음악회에서 초연한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그는 조국의 음악적 발전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혼자 힘으로 이어나가려고 노력했다. 결국 3회로 막을 내린 국제음악제는 회가 거듭 될수록 안익태의 인간친화지능과 음악지능으로 개최된 것을 발견 할 수 있다.

제3회 국제음악회를 마친 그는 <논개>를 작곡하여 도쿄에서 연주(D)한다. 또한 신라의 옛터에서 새로운 민족 음악의 가락을 채집하여 <계림>을 작곡하면서 마음을 달랜다(D). 비록 그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준 조국이었지만 그의 조국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 그 후의 세계 연주(F)에서도 그는 <코리아 판타지>, <논개>, <계림>등을 연주하면서 한국을 세계무대에 알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D).

이처럼 그는 음악·자기성찰·인간친화지능을 통합 발휘하여 음악적 성취를 이루었지만, 한국에서는 그의 음악적 재능의 가치성보다는 사회적, 사상성의 시비에 초점을 두었다. 하지만 그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자신의 작품으로 한국을 알림으로 세계에서 한국의 음악가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그림 6>은 '음악·자기성찰·인간친화지능 통합 발휘기'를 체계적 접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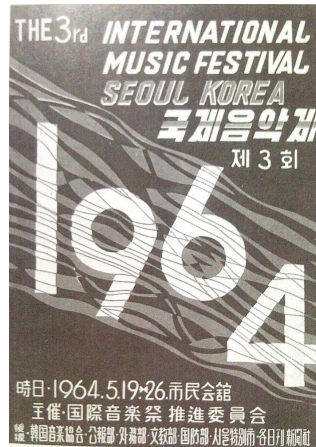
<그림 11> 체계적 접근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음악지능·자기성찰·인간친화지능 통합 발휘기'



이승만 대통령 탄신음악회
지휘자로 초청,
<애국가>·<코리아 판타지>
연주,
한국의 음악적 발전 가능성
발견,
제1,2,3회 국제 음악제,
<흰백합화> 작곡·초연,
<논개>·<계림> 작곡,
세계무대에서
<코리아 판타지>
·<논개>·<계림>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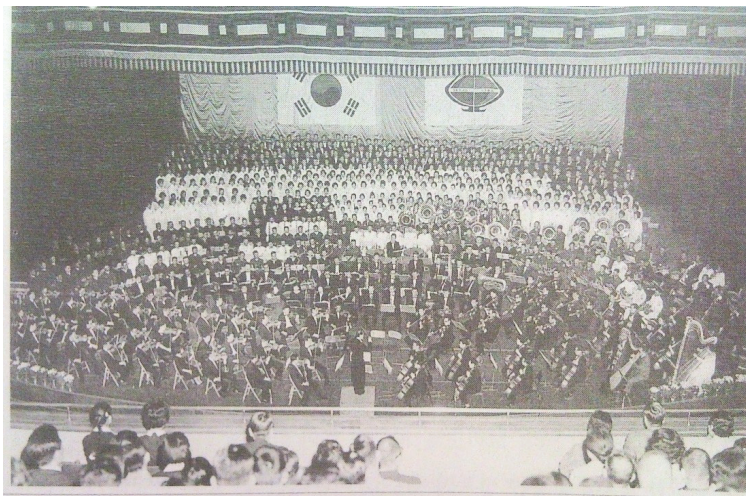
광복을 맞이한 한국,
이승만 대통령,
기량이 뛰어나지 않은
한국 오케스트라,
박정희 정권 수립,
무보수로 출연해준
외국인 연주자,
세계무대

<그림 12> 제3회 국제음악제 팸플릿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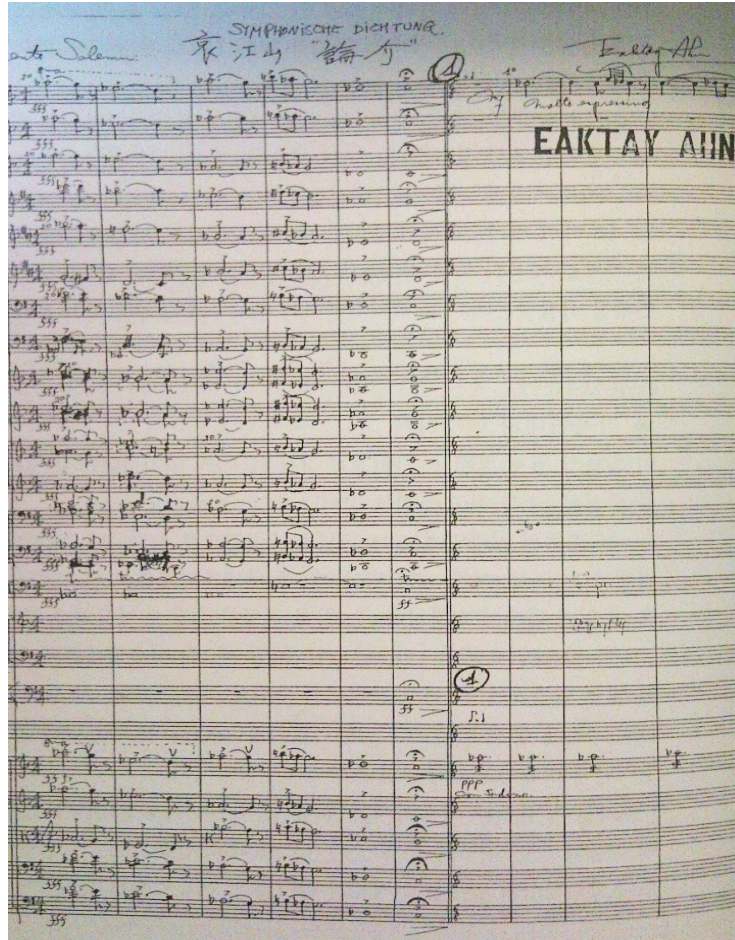
(자료출처 : 안익태)

<그림 13> 제1회 국제음악제 개막식에서
안익태 지휘로 <코리아 판타지> 연주



(자료출처 : 안익태)

<악보 3> <논개>의 친필 악보



(자료출처 : 안익태)

V. 결론

현대의 교육은 인간이 소유한 다양한 지적 능력을 발견하여 그 독특한 능력을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음악 교육의 현장에도 자신의 음악적 능력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수많은 학생이 있다. 그들에게 있어 비범한 음악적 성취를 이룬 음악가는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다. 특히 위대한 음악가의 지적 능력이 계발된 과정을 주목하는 것은 그들의 능력 계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위대한 음악가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역할 모델을 제시하고, 그들이 더 나은 실천과 성취를 이룰 수 있게 하고자 비범한 음악적 성취를 이룬 작곡가 안익태를 대상으로 그의 독특한 지적 능력이 무엇인지 밝히고, 그 능력이 전 생애에 걸쳐 어떻게 형성되고 계발되었는지 분석하였다.

안익태의 지적 행보에 커다란 영향이나 변화를 가져왔던 주요 생애 사건을 찾아 Gardner의 다중지능이론에 근거하여 그의 지적 능력을 분석·평가한 결과, 그는 음악·자기성찰·인간친화지능이 가장 발달하였으며, 신체운동·논리수학지능과 관련된 분야에도 소질을 보였다. 그러나 언어지능은 낮아 보인다. 그 밖에 그가 공간·자연친화지능을 발휘하는 모습은 발견할 수 없었다.

안익태의 강점 지능인 음악·자기성찰·인간친화지능의 계발 과정을 탐색하고자 Gardner의 체계적 접근 모형을 그의 주요 생애 사건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는데, 그의 지적 능력은 다양한 공부와 경험, 사회·문화적 환경,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통하여 발달하였다. 그의 지적 능력 발달을 방해하는, 음악 교육을 받기 힘든 환경, 경제적 어려움, 일제치하 등의 요인들이 있었지만 그는 자신만의 강점을 통해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오히려 이런 난관을 통해 지적 능력을 더욱 강화시켰다.

이처럼 그의 지적 능력은 개인과 영역, 분야의 상호 작용을 통해 발달되거나 제한되는 과정을 거쳤는데, 그 과정의 특징에 따라 '음악·자기성찰지능 발현

기', '음악지능 제한적 발달기 및 자기성찰·인간친화지능 발달기', '음악·자기성찰지능 발달기 및 인간친화지능 제한적 발달기', '음악·자기성찰·인간친화지능 통합 발휘기'로 구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지적 능력 계발 과정을 통하여 안익태가 조국과 세계 평화에 대한 사랑을 외치는 위대한 음악가로 성장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음악 교육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지적 능력은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계발되거나 제한되는데, 특히 음악 교육에서 어린 시절의 다양한 문화적 체험 및 음악적 경험은 음악지능의 발현에 도움을 준다.

둘째, 비범한 음악적 성취를 이루고자 한다면, 타고난 음악지능과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기성찰지능이 필요하다.

셋째, 자신의 타고난 음악지능을 발견하였다면, 음악적 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라 적극적으로 다양한 공부와 사회·문화적 경험을 해야 한다.

넷째, 자신의 음악지능을 발견하고 계발할 수 있는 적합한 교사를 만나야 한다.

다섯째, 학생이 가진 음악적 지능의 가치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학부모와 교사의 적극적인 후원과 경제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안익태라는 특정 개인에 관한 연구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획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가 일반화된 법칙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유사한 연구들과의 관련성을 검토하거나, 위대한 음악가를 대상으로 하는 전기적 인물 연구가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그 공통된 결과에 대한 통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 문헌

- 교학사 출판부 편, 「새 국어사전」, 서울 : 교학사, 2004
- 김경래, 「청개구리들의 만찬」, 서울 : 일곡문화재단, 2002.
- 노동은, 「한국음악론」, 경기 : 한국학술 정보, 2002.
- 문용린, 「지력혁명」, 서울 : 비즈니스북스, 2004.
- 문용린 외 2인, 「그러나 그의 삶은 따뜻했다 : 정문술의 다중지능 분석 보고서」, 서울 : 산해, 2004.
- _____, 「백범 김구의 지적 계발과정 탐색」, 경기 : 집문당, 2005.
- 박효정 외 8인, 「다중지능이론과 수업」, 경기 : 양서원, 2006.
- 전정임, 「안익태」, 서울 : 시공사, 1998.
- _____, 「애국가와 안익태」, 서울 : 성광문화사, 1978.
- 로리타 탈라벨라, 「나의 남편 안익태」, 서울 : 신고문고, 1974.
- 현경실 외 12인, 「21세기 음악교육학 총론」,
청원군 : 한국교원대학교 출판부, 2009
- 홍정수 외 2인, 「두길 서양음악사」, 서울 : 나남출판, 1998.

2. 번역 문헌

- Gardner, Howard, 「마음의 틀」, 이경희 역, 서울 : 문음사, 1993.
- _____, 「다중지능의 이론과 실제」, 김명희 외 1인 공역,
서울 : 양성원, 1998.

- _____, 「비범성의 발견」, 문용린 역,
서울 : 해냄 출판사, 1999.
- _____, 「다중지능」, 문용린 역, 서울 : 김영사, 2003.
- _____, 「체인징 마인드」, 이현우 역, 서울 : 재인, 2005.

3. 외국 문헌

- Csikszentmihalyi,
Mihaly, *Creativity : flow and the psychology of discovery and invention*, New york : HarperCollins, 1996.
- Gardner, Howord,
The unschooled mind : How children think and schools should teach,
New york : Basic Books, 1991.
- _____, *Creating Mind*, New york : Basic Books, 1993.
- _____, *The Art and human development*, New York :
Basic Books, 1994.
- _____, Csikszentmihalyi, M, & Damon, W., *Goodwork:
when excellence and ethics meet*, New York :
Basic Books, 1998.

4. 국내 학술지

- 강민수 · 문용린 “생애사 연구의 교육심리학적 고찰”, 「인간발달연구」,
2007년 3월, 제 14권 제1호, p.1~19.

5. 학위 논문

류숙희, “백범 김구의 잠재능력 계발과정 연구 : 다중지능이론의 관점에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4.

안태진, “다중지능이론의 관점에서 본 전해린의 삶”,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유현실, “재능의 발달 과정에 관한 연구 : 체육 재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6. 기타

2009년도 안익태 기념음악회 팸플렛

http://www.ahnetai.or.kr/notice/notice_list.asp(안익태 기념재단)

ABSTRACT

A Study on the Intellectual Development Process of Ahn Eak-tai's

Jung, Eun Jin

Department of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unique intellectual development of conductor and composer Ahn In-tai over the course of his life, with the purpose of finding the key to developing intellectual ability and providing a case study that may be of use to educators. This study is conducted by reconstructing and examining the major events in Ahn's life that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his strong intellect, with the goal of understanding how Ahn's various intelligences developed over the course of his life. The theories of Howard Gardner will be appli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among the three factors for intellectual development: self, context, and domain.

Of Gardner's intelligence types, Ahn continuously developed his musical, intrapersonal, and interpersonal intelligences

over the course of his life.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intelligence types, he divided them into different processes: “rise of musical/intrapersonal intelligence,” “limited development of musical intelligence and rise of intrapersonal/interpersonal intelligence,” “rise of musical/intrapersonal intelligence and limited development of interpersonal intelligence,” and “integrated development of musical, intrapersonal and interpersonal intelligence.” The development or limitation of each of these processes occurred through the interaction of self, context and domain.

Through this process of developing intelligence, one can discover evidence of Ahn’s ardent patriotism and the efforts he made to educate those in foreign countries about Korea.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for music education is that extraordinary achievement in music requires a rich variety of educational experiences, dedication, and a strong awareness of social and cultural contexts.

As this study is focused on a particular person, more work is necessary in order to formulate general principles based upon the results, such as investigating the similarities between this case and other research done on similar figures, or accumulating research on extraordinary musical figures across different time periods in order to deduce what meaningful commonalities exist among them. If rigorous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extraordinary musical talent

can continue, it will be possible to devise exercises that allow for maximum development of innate ability. If such research is based on figures in Korea, it would provide more persuasive data for teachers, and the characteristics of school education and social/cultural education would drive further exploration into effective ways to form and develop intellectual ability.